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제1권

속진에 관한 템플턴 전미대상 보고서
(The Templeton National Report on Acceleration)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제1권



니콜라스 콜랜젤로 (Nicholas Colangelo)
수잔 애설린 (Susan G. Assouline)
미라카 그로스 (Miraca U. M. Gross)

속진에 관한 템플턴 전미대상 보고서
(The Templeton National Report on Acceleration)

全美英才 협회 승인

© 2004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디자인: Benson and Hepker Design, Iowa City, Iowa

표지구성: Joan Benson

펴낸 곳: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owa

2004년 10월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College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Iowa

600 Blank Honors Center

Iowa City, Iowa 52242-0454

800.336.6463

<http://www.education.uiowa.edu/belinblank>

Gifted Education Research,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re (GERRIC)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2052

<http://gerric.arts.unsw.edu.au/>

<http://nationdeceived.org>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감사의 글.....	vii
	추천의 글.....	ix
	학교에 보내는 글.....	xi
제1장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을 무시하는 미국.....	1
제2장	미국의 영재들을 가로막는 학교.....	5
제3장	미국의 속진 역사.....	11
제4장	간단한 예스: 조기입학.....	15
제5장	초등학교에서의 일반.....	19
제6장	재능 찾기(Talent Search) 혁명.....	25
제7장	어려운 선택: 고등학교에서의 도전.....	29
제8장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의 모든 것.....	31
제9장	대학에 일찍 들어가기.....	35
제10장	공공정책: 포부의 제도화.....	39
제11장	금전 문제: 속진의 재정적 측면.....	43
제12장	속진에 관한 목소리.....	45
제13장	교사들이 도울 수 있는 길.....	49
	맺음말.....	52
부록 A	전문(全文) 요약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53
부록 B	저자 소개.....	54
부록 C	코니 벨린 & 재클린 블랭크 영재교육 및 재능개발 국제센터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56
부록 D	영재교육 연구자료정보 센터 (The Gifted Education Research,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re).....	57
부록 E	존 템플턴 재단 (The John Templeton Foundation).....	58
부록 F	학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자료.....	59
부록 G	독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67

감사의 글

이 출판물은 실질적으로 전 국가적인 보고서입니다. 존 템플턴 재단의 지원 하에 우리는 2003년 5월 아이오와 대학에서 속진 관련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속진에 관한 거국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명성이 높은 학자와 교육자들을 초빙하였습니다. 전체 참가자 명단은 2권의 부록 E에 실려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학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자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함께 고심하였습니다. 그 활기찬 토론의 결과,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1, 2권이 탄생하였습니다.

2권에 실린 정보는 1권 내용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식과 내용에 관한 최종 결정은 모두 우리 세 사람이 내린 것이며, 우리는 1권의 내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2권의 장(章)들을 집필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Linda E. Brody, Johns Hopkins University
James J. Gallagh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Eric D. Jones,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James A. Kulik, The University of Michigan
David Lubinski, Vanderbilt University
Ann E. Lupkowski-Shoplik, Carnegie Mellon University
Sidney M. Moon, Purdue University
Michelle C. Muratori, Johns Hopkins University
Paula Olszewski-Kubilius, Northwestern University
Sally M. Reis, University of Connecticut
Nancy M. Robinson, University of Washington
Karen B. Rogers, University of St. Thomas
W. Thomas Southern, Miami University of Ohio
Julian C. Stanley, Johns Hopkins University

다음 분들은 1권의 초고를 검토하고 사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Clar Baldus, Belin-Blank Center, The University of Iowa
Laura Belin, Freelance Writer
Camilla Benbow, Vanderbilt University
Kay Colangelo, Therapist in Private Practice
Laurie Croft, Belin-Blank Center, The University of Iowa
Sandra Damico, The University of Iowa
Jan Davidson, Davidson Institute
Trudy Day,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Jerilyn Fisher, Belin-Blank Center, The University of Iowa
Janelle Grammens, Davenport Community Schools
Catherine Hirsch, Belin-Blank Center, The University of Iowa
Peter Hlebowitsh, The University of Iowa
Katherine Hoekman,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aron Hoffman, High School Student
Ann Hoffman, Educational Consultant

Judy Jeffrey,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of Iowa
David Lubinski, Vanderbilt University
Rosanne Malek,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of Iowa
James Marshall, The University of Iowa
Megan Foley Nicpon, Belin-Blank Center, The University of Iowa
Christina Hamme Peterson, ACT., Inc.
Lane Plugge, Iowa City Community School District
Joseph Renzulli, University of Connecticut
Ann Robinson, University of Arkansas
Andrew Sheehy, The University of Iowa Foundation
Julian C. Stanley, Johns Hopkins University
Ted Stilwill,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of Iowa
Rena Subotni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우리는 협조해주신 다음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Linda Brody, Johns Hopkins University
Jane Clarenbach,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Nancy Robinson, University of Washington

우리는 또 벨린 블랭크 센터의 행정비서 프란시스 블럼(Frances Blum)과 비서 레이첼 한센(Rachelle Hansen)에게도 이 프로젝트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보고서를 위해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고 그들 자신의 희망과 염려를 표해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보고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존 템플턴 재단에 감사합니다. 그 후원에 힘입어 이 보고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아서 슈워츠 박사(Dr. Arthur Schwartz)의 지원에 특히 감사합니다. 슈워츠 박사는 템플턴 재단을 대표하여 이 보고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디자인으로 두 권 모두를 제작해준 벤슨 & 헵커 디자인(Benson & Hepker Design)의 로빈 헵커(Robyn Hepker)와 조앤 벤슨(Joan Benson)에게 감사합니다.

집필 고문으로 봉사해준 아비야 쿠쉬너(Aviya Kushner)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력과 탁월한 저술 능력은 1권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여해 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내용에 관한 최종 결정은 모두 우리 세 사람이 내린 것이며, 1권의 내용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콜렌젤로 (Nicholas Colangelo)
수잔 애설린 (Susan Assouline)
미라카 그로스 (Miraca Gross)

추천의 글

속진에 대한 템플턴 보고서 1권은 영재 학생들에게 속진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학교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50년이 넘게 수행되어 온 순수한 연구에 기반을 둔 속진은 그 실천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활용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속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교육기관들은, 특히 초·중등학교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시사하는 점과 건전한 사회정서적 적응에 방해가 된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권에 명시된 대로, 오늘날의 연구에 자극을 받은 영재교육 및 심리학 분야의 목소리들이 꾸준히 속진을 지지해 왔으나 아직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한 편이다.

템플턴 보고서는 속진에 대한 오해를 파헤치고 연구와 효과적인 관행의 사례, 학생들의 경험담을 통해 그 오해의 충격을 떨쳐 버림으로써 오늘날의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이 다면적인 접근법은 일반인과 교육자들이 속진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이 보고서를 각 주와 교육구에서 행동을 취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교육자들의 손에 달렸다.

“그냥 ‘노’라고 말하라”는 구호에 비유하여, 이 보고서는 독자들이 속진에 “예스”라고 말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의 준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학생을 속진 전략에 맞추는 데 바탕이 된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유형의 속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서술한다. 또 속진이 대학과 학교, 학부모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입증한다. 더불어 교사와 일반독자가 그런 속진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대중적 관심이 교육에 대한 “일률적 방안(one size fits all)” 사고방식에 내재된 강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며 영재를 학교에 붙들어두는 굴레를 벗기기를 희망한다. 뭔가 큰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리처드 올렌첵
(F. Richard Olenchak, Ph.D., P.C.)
전미영재협회 회장
휴스턴 대학 교수, 심리학자

도시 재능 연구소
(Urban Talent Research Institute) 소장

조이스 밴테슬-바스카
(Joyce VanTassel-Baska, Ed.D.)
전미영재협회 차기 회장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조디 &
레이튼 스미스 교육학 교수
(Jody and Layton Smith Professor of Education)
영재교육 센터 소장

학교에 보내는 글

이 보고서의 저자인 우리 세 사람은 통틀어 100년이 넘는 세월을 교육계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또 그들이 학생들의 삶에 몰두하는 모습에 심심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교육경력에 학급 교사로 출발했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 가운데 우리는 수월성에 내재된 평등함에 거듭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능은 성별과 인종,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을 뛰어넘어 나타납니다. 미국의 모든 교실에 -시골이나 도심이나 교외나- 속진할 준비가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공립에서 사립,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학문적 속진이 부유층 아동을 위한 하나의 개입이라고 비판합니다만, 그것은 사실과는 턱없이 거리가 먼 소리입니다. 사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학교가 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속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립학교로 옮기거나 개인교수를 구하거나 여름 속진 과정 또는 별도의 교육과정 교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동들은 학교가 거부하면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할 희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속진에 관한 진실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속진은 대안을 찾을 길이 없는 대부분의 영재아동에게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속진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보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어린 나이에 진급시키는 하나의 개입방식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수준과 난이도 및 속도를 학생의 준비상태와 의욕에 맞추어 의미합니다. 속진의 유형에는 조기입학, 월반, 단일과목 속진, 대학과목 선행이수(AP)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속진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비싸지 않으며 부유한 학교와 빈곤한 학교의 학생들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학교에서 속진에 관한 대화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많은 교사와 행정가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들의 재능에 걸맞은 수준으로 진급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뒷받침과 증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그런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속진은 영리한 학생들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개입방식임을 이해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속진은 결국 한 아이, 한 가족, 하나의 상황으로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속진은 강력한 교육적 동맹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부모의 참여뿐 아니라 개별적인 요구와 여건에 대한 배려도 필요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보고서는 속진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설득할 뿐 아니라 학교가 속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재아동의 속진에 관한 교육자와 학부모간의 대화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1. 우리는 아이의 준비상태를 알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았는가?
2. 준비상태를 볼 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속진 유형은 무엇인가?
3. 극소수의 경우, 속진은 효과가 없었다. 아이의 성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성취의 기회를 선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독자들도 미국의 모든 학생이 그들의 정신과 가슴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어디로든지 비상하도록 돕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니콜라스 콜렌젤로 박사
(Nicholas Colangelo, Ph.D.)

수잔 애설린 박사
(Susan G. Assouline, Ph.D.)

미라카 그로스 박사
(Miraca U. M. Gross, Ph.D.)



수월성 (秀越性, Excellence)을 무시하는 미국

미국은 수월성을 무시하는가? 신문 표제들은 우리의 학교들이 다른 국가의 또래집단에 뒤처지는 약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은밀한 이야기가 있다.

각 주(州), 각 학교, 대도시, 작은 농촌마을에서 학생들은 교육제도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정치인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그들은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예상외로 존재들이다. 세 살에 삼푸 병의 글을 읽고 다섯 살에 신문 사설을 읽는다. 또 점원보다 더 빨리 식료품 계산을 할 줄 안다. 그들은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고 조부모의 탄성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들은 학급에서 가장 크게 좌절하는 학생들이기 일쑤다. 유치원에서 지루해 하고 1학년이 되어서도 지루해 한다. 해가 가도 새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 중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교육 제도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똑똑한 학생들을 급우들과 동일하게 배우게 함으로써 평준화시킨다. 교사와 교장은 실제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목살한다.

칭찬과 격려 대신 그 학생들은 “노(no)”라는 한마디를 듣는다. 도전을 원할 때 그들은 지지당한다. 날고 싶을 때 그들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

제 학년에 남아있어라. 분수를 알아라.

이것은 국가적 수치다. 그 대가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수월성을 붕괴할지도 모른다.



제목에 관하여

이 보고서의 제목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는 오늘날 우리의 교실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우리의 영재들이 속진(acceleration)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학생들, 그리고 국가를 기만하는 셈이다.

우리는 “기만”이 매우 강력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제목을 결정하기에 앞서 많은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옹호하는 바이다.

이 제목은 도발적이면서 동시에 정확하다. 그것은 미국을 향한 우리의 진솔한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재들을 기만하는 것은 더 이상 변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제2권에서 발췌한 가장 중요한 요점 20가지

1. 속진은 영재 아동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입방식이다.
2. 수재 학생들에게 속진은 학문적,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3. 속진은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 개입방식이다.
4. 영재 아동들은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또래보다 조숙한 경향이 있다. 많은 수재 학생들에게 속진은 그들의 조숙함과 어울리는 급우들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 준다.
5. 수재 학생들은 또래 그룹을 위해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배울 때 지루해 하고 불만을 느끼며 학습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6. 시험, 특히 수준 이상의 시험(상급생을 위해 개발된 시험을 실시함)은 속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7. 학교가 속진에 대해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와 방법이 나와 있다. 따라서 속진은 해당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낮고 성공률이 높은 개입방식이다. *아이오와 속진 척도(Iowa Acceleration Scale)*는 학교가 전 학년 속진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입증된 효과적인 도구이다.
8. 수재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18가지 속진 유형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학년 기반의 속진으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재학 학수를 단축시키며, 또 하나는 과목 기반의 속진으로 보다 일찍 고급 교과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9. 조기 입학은 일부 영재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다. 일찍 입학한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은 연상의 급우들과 대체로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10. 대학에 조기 입학한 영재 학생들은 장·단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으로 이어진다.
11. 대학에 정규학생으로 조기 입학하는 대신, 또래 그룹에 남길 원하는 수재 고등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이중 등록하기, 원격교육, 여름강좌 등이 포함된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dvanced Placement: AP)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길 원하는 수재 학생들에게 최선의 폭넓은 선택이다.
12. 대학에 조기 입학한 학생 가운데 사회적 또는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단기간에 그치거나 적응과정의 일부이다.
13. 급격한 속진(2년 또는 그 이상 속진)은 탁월한 영재 학생들에게 학문적,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
14. 그 성공과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풍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자들은 속진의 실행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15. 교육적 속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대대적으로 변화도록 고무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 전문가 주도과 같은 모든 변화 엔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16. 장애 영재 학생들을 위한 속진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집약적인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
17. 자녀의 속진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모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8. 속진으로 드러난 몇몇 문제점들은 주로 불완전하거나 미비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19. 교육의 평등은 교육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학습 준비상태에 있어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며 학생 개개인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20. 교육자들의 핵심 논제는 영재아를 위한 속진 교육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속진 교육 방법에 있다.

위 요점들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만 당한 국가 제2권을 참조.

“노” 라고 말하는 미국

미국의 수재들은 어떤 말을 듣는가? 해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속도로 나아가야 할 학생들이 제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기대치를 낮추고 꿈을 일단 접어두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교사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나중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많은 교육청 관리들은 말한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거듭된 연구는 똑똑하지만 지루함을 느끼는 수많은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는 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수월성을 진작시키는 것에 관한 한, 우리는 자기기만에 빠져있다. 수월성을 고취하는 길은 그것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수월성은 “예스”라는 한마디로 시작한다.

수재 아동들에게 복잡한 수학문제를 주는 데 예스. 그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도록 하는 데 예스. 또래 그룹에 앞서서 과목을 듣도록 하는 데 예스. 그들이 비상하도록 하는 데 예스.

대신, 우리는 “노”라고 말한다. 노라고 말함으로써 수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꺾고 우리 자신이 피해를 본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은 동갑내기과 어울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그것에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의 국가와 사회, 아이들에게 막대한 것이다.

수월성은 그 활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것은 안일해질 수 있고 무관심해질 수 있다. 수월성은, 무시될 경우, 항상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속진에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선한 의도로, 우리의 국가적 기준을 우등에서 기초 수준으로 낮추고 만다. 수월성은 목살될 뿐이다.

“예스” 에 드는 비용

수월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

거의 들지 않는다. 수재 학생들을 진급시키는 비용은 최소한이다. 사실상 속진은 종종 비용을 절감시킨다.

한 고등학생이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수업과 같은 대학수준 과목을 수강할 때 그 부모는 수천 불을 절약하게 된다. 그런 과목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서, 2004년 190만회에 이르는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시험을 치른 100만이 넘는 학생들의 부모는 매년 대학 등록금 수백만 불을 절약하고 있다. 또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를 보다 빨리 지역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층을 증대시킨다.

이 보고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예스라는 단어가 미국 학생들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스가 의미하는 바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그것은 위대한 단어이다. 그것은 미국의 업적에 대한 장편 서사를 시작하기 위한 단어이다.

예스라는 단어는 돈을 절약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지성의 어린 아동들을 구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비슷한 관심거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목말라하는 학생들에게 고독과 사회적 고립의 수년 세월을 절약해주는 것이다.

예스는 도전을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성취의 기회를 선사한다.



미국의 영재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만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할 때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온갖 종류의 조언을 제시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속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오래된 환상의 재생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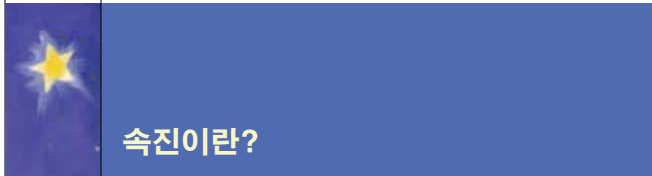
무엇이 진짜 사실이며 무엇이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는지 판단하기는 힘들다. 학계 연구에 의하면 속진에 대해 알려진 내용 중 대부분은 거짓이며, 게 중에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것도 있고 진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속설과 진실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미국은 기만을 당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간 속진이 영재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속진에 대한 결정은 전통적으로 개인적 견해나 부족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논쟁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이해는 도외시된 것이다.

학교는 온갖 종류의 이유를 들어 미국의 영재들의 발전을 저지해왔다. 오늘날 중요한 문제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다. 최근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중견 교육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들어본 결과, 우리는 12가지의 주요 원인을 찾아냈다.

우리는 또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과 교육 전문가들이 실시한 탄탄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원인에 대해 응답을 제시했다.



속진이란?

속진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정상 속도보다 빨리 또는 더 어린 나이에 진급시키는 교육적 개입방식이다.

속진에는 단일 과목 속진, 월반, 조기입학, 학점 선행 이수 과정(Advanced Placement), 고등학교에서 대학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역주) 등이 포함된다.

속진은 학생의 학습 준비상태와 의욕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과 난이도, 속도를 의미한다.

무엇이 속진이 아닌가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속진은 아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준비되기 전에 억지로 고급 내용을 배우게 하거나 연상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속진은 학생들이 스스로 솟아 오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속진은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런 차이 가운데 일부는 교육적 융통성을 적용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속진은 교육적 효과가 누적되는 이점이 있다.



속설

속진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사실

속진의 중요성은 숫자가 아닌, 탁월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다. 수많은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숫자가 아닌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과 이중 언어 교육이 포함된다. 속진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속진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사적 지표로 예측해 볼 수는 있다.

(1) 지난 수년간 표준화된 시험제도를 통해 속진 교육과정과 학년 배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준비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왔다. 준비상태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는 학습의욕, 일일 성취도, 학부모 및 교사의 관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는 모두 학교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

(2)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은 원래 몇몇 엘리트 학교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현재 미국 고등학교의 60%로 확대되면서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모든 고등학교에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속진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12가지 이유

이유1: 교사들이 속진에 대해 잘 모른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 교육자들은 속진의 이점을 입증해 주는 연구에 관한 지식이 없다.

응답: 이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그런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2권짜리 이 종합 보고서는 속진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한데 모은 것으로 모든 학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유2: 속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K-12 과정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 역주) 교육자들은 속진을 하나의 개입방식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선택할 확신이 없다.

응답: 우리는 모든 교육자들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존중한다. 속진의 수많은 학문적, 사회적 이점과 관련된 압도적인 증거는 교육자들이 속진을 한의 교육적 옵션으로 고려하는 데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이유3: 속진은 개인적 신념에 상반한다. 개인적 신념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결과와 대치할 때 개인적 신념은 거의 언제나 승리한다.

응답: 이 보고서는 교육자와 학부모 사이에 자성과 대화를 권장하면서 그들이 속진에 대해 가진 개인적인 신념을 재평가하기를 기대한다.

이유4: 나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많은 교육자가 나이를 -준비상태가 아닌- 학년 배정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응답: 나이가 학년과 상응한다는 개념은 개인적 차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영재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 비해 학문적으로, 감정적으로 조숙하다. 따라서 학년을 배정할 때 나이보다는 준비상태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다.

이유5: 안전이 후회보다 낫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속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는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응답: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과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다. 속진을 선택하지 않는 그 자체도 하나의 개입방식이다. 아이들의 학문적,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지루함과 학교로부터 이탈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유6: 교육 대학에서 속진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사를 양성하는 이 기관들은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이 속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비시키지 않는다.

응답: 풍부한 연구자료가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학 교수들은 미래의 교사들에게 그것을 소개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교수진은 연구를 존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 정보를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

이유7: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나쁘다. 교사와 학부모는 속진이 아동기를 단축한다고 믿는다.

응답: 속진은 학생이 적절한 속도로 나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두르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나아갈 능력이 있는 의욕적이고 열정적이며 똑똑한 아이를 적합한 교육과정에 맞추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똑똑한 학생의 배우고자 하는 맹렬한 기세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유8: 새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 교육자들은 속진한 아이들이 새 학급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응답: 학교 환경 내에서 사회적 적응은 복잡한 문제이다. 속진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쉽게 또는 바로 적응하지 못한다.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아이들은 사회적 자신감을 기르는 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속진되고 난 뒤 환경에서 사회적 성공은 그 증거가 학문적 성공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이기 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 속진은 교우관계의 폭을 넓혀준다. 많은 영재 아동이 연상의 아동에게 자연히 끌리게 되므로, 오히려 친구를 더 쉽게 사귄 수도 있다.



속설
속진은 부유층을 위한 것이다.

현실
재능은 인종, 성, 지역, 경제적 배경과 같은 모든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적용된다. 속진은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가 높다. 부유한 부모들은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별도의 기회를 부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속진은 가정이나 학교에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킬 뿐이므로 평등한 기회와 장을 제공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소수 집단 아동들과 빈곤층 학생들을 많이 상대해온 나는 늘 아이들의 결점보다는 장점에 주력하는 쪽을 옹호해왔다. 나는 속진을 지지하며, 그것은 소수 집단 학생들뿐 아니라 그런 도전에 준비가 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식이다.”

도나 포드(Donna Y. Ford) 교수, 밴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누가 속진 되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똑똑한(수재), 재능을 타고난(영재), 능력이 뛰어난, 대단히 우수한 등과 같은 용어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한다. 그 모든 용어가 가리키는 바는 속진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은 학문적 능력과 준비상태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속진은 고도의 학문적 능력을 요구한다. 표준 시험 성적과 교사의 관찰을 통해 어떤 학생이 현재 교육과정을 마스터하고 보다 진도가 빠르고 복잡한 수업에 임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이가 속진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스터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와 교육자들은 속진 여부를 고려할 때 아이의 학습의욕, 사회적-감정적 성숙도, 관심 등도 감안하고 싶어 것이다.

속진의 유형에는 최소한 18가지가 있으며, 부모와 교육자가 보기에 어떤 유형은 자신의 아이에게 꼭 적합하며 다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월반 대상 학생들은 그 선택이 성공적이 되려면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적 성숙도 필요하다. 반면, 단일 과목 속진에서 보다 중요한 기준은 학문적 능력이며 사회적, 감정적 성숙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속진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그 답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가 다른 형태의 속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간 속진은 미국의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속진을 받을 수 있었고 받아야 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앞으로 속진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보다 많은 정보가 활용 가능해짐으로써 속진을 보급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만 할 것이다.

이유9: 아동 개인은 전체를 위한 평등한 기회만큼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 차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문화적 분쟁 속에서 희생되어 왔다.

응답: 교육자들이 평등과 동일을 혼돈할 때 그들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배우기를 원하게 된다. 그것은 평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속진으로 말하자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속진은 그들에게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적절하고 도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된다.

능력을 평가하고 개인적 차이를 수용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데 대한 우리의 지식은 풍부하다. 교육의 초석은 아동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융통성이다. 그런데 가끔 그런 융통성은 상실되며, 정치적, 문화적 압박이 개인의 학습 요구를 동질화시킨 채 학습 차별화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아동의 교육적 차별화에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는 민주적이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각 학급 담임은 아동마다 특유한 학문적,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알고 있다. 속진은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유10: 속진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교사들은 때때로 한 아이를 속진시키는 것이 다른 학생들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응답: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런 수준의 배려가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운동이나 음악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속도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하다. 학교에서 한 두 명의 아이들을 속진시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서 학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유11: 아이의 지식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교사들은 속진한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염려한다.

응답: 우리가 학생들을 속진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또래 집단에 비해 학문적 발달과 지식 면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영재 학생들은 학습속도가 빠른 아이들이며, 어떤 공백도 신속하게 사라지게 된다.

이유12: 실패는 기억에 남는다. 속진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실패의 이유만큼이나 과장되어 왔다.

응답: 좋은 뉴스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반면, 나쁜 뉴스는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며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간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심지어는 직접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성공하지 못한 속진에 대해 크게 과장해서 말할 것이다. 연구학자들은 속진이 완벽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들은 이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종종 미비한 계획이나 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개입방식조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몇몇 부실한 결정이 속진을 하나의 선택으로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탁월한 계획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속진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토론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기만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속진 역사

미국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꿈을 좇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신념 아래 세워졌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러한 권리를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보편적 권리라고 불렀다.

미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 영재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의 꿈을 추구하며 대학에 재학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개인교사를 통해 고등교육을 준비하거나 단일 교실 교사(校舍)를 졸업한 아이들이었다. 주요 기관과 대규모 학교 제도가 미국에 보편화되기 전에는 개별 교육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단일 교실 교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부를 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 잘 알았고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미국의 문화가 보다 집단화, 표준화되면서 단일 교실 교사는 학생을 능력과 의욕이 아닌, 나이에 따라 분류하는 학교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교육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아이를 또래와 어울리게 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결정일 뿐이었다. 그것은 집단 유사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함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했다. 또한 그 결정은 산업적인 조직 모델이 효율적이라는 미국의 신념과도 궤를 같이했다.

잃어 버린 것은 개인적 차이에 대한 배려였다. 교육적 요구에 있어 개인적 차이는 양극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학생들은 새롭고 복잡한 내용을 자신이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에 일찍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영재 학생들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또래와 함께 배우게 되었다. 방과 후 심화활동은 1년이나 2년 또는 3년을 건너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대신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배우 -진정 행복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수그러든 것이다.



이 문제는 왜 다른가

역사적으로 교육은 늘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다. 따라서 효과가 있는 변수를 분리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미국에는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교육적 관행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한 관행들은 개인적 믿음이나 정치적 격식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속진은, 하나의 개입방식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확고하게 뒷받침되어왔다. 하지만 그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교육계에서 널리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 속진에 관한 연구는 포괄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2) 충분히 연구가 되었음에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육적 관행은 속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진의 유형

1. 유치원 조기입학
2. 초등 조기입학
3. 월반
4. 계속적 발달
5. 자기진도 조절 학습
6. 과목별 속진/부분 속진
7. 혼합 학습
8. 교육과정 압축
9. 단기 완성
10. 멘토링
11. 과외 활동
12. 통신 학습
13. 조기 졸업
14. 동시/이중 등록
15.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16. 학점 인정 시험제도
17. 대학에서의 속진
18.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조기입학

출처: W. T. Southern & E. D. Jones,
 "Types of Acceleration: Dimensions and Issues,"
 기만 당한 국가 2권 1장, 5-12쪽.

전쟁 기간

전쟁 기간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빨리 마치도록 권장해왔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기술이 전통과 규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차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오하이오 주립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대학은 어린 대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한국전쟁 중에도 대학들이 비슷한 식으로 대처했다.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은 입대하기 전에 정규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개 대학들은 계속해서 어린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거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중단했다.

그러나 포드 재단은 1950년대 중반, 현재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미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일에 착수했다. 대학 위원회 주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은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점과 이수 과목 단위를 승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04년 190만이라는 놀라운 횟수의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시험이 시행되었다. 응시생들은 이전 세대의 단일 교실 교사에서 배운 특출한 학생들의 후예들이다.

전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똑한 학생들은 지금도 예스라고 말한다.

종종 월반한 미국의 지도자들

속진은 미국 교육사 구조의 일부이다. 속진한 학생들은 미국 지도자들이 걸어온 길을 따르는 셈이다.

시민 평등권 운동의 선두주자이자 노벨상 수혜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만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문학계를 대표하는 남부 출신의 저명한 작가 유도라 웰티(Eudora Welty)도 속진을 했고, 시인 엘리엇(T. S. Elliot)도 마찬가지다.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조슈아 레더버그(Joshua Lederberg)가 최연소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과학계에서는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찰스 타운스(Charles Townes)가 월반을 했고, 대법원에는 만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산드라 데이 오코너가 있다. 모두 속진으로 성공한 두드러진 사례이다.

속진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 듀보이스(W. E. B. DuBois)는 월반을 하고 만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T. S. 엘리엇은 하버드 대학에서 3년 만에 학사학위를 마치고 1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월반하는 학생들은 대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현실은 바로 그들이 미국 사회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젊은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미국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회에 일찍 진출하면 모두에게 유익하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확인했고 그것은 지금도 사실이다. 속진은 교실에서 도전을 받지 못하는 한 명의 고립된 영재 아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 관한 것이며 미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수월성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온 것으로 다른 이들을 능가하거나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르거나 작물을 재배하듯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수월성의 가장 오래된 어원은 언덕(HILL)에서 유래한다.

“그 언덕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초원이 평평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풍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 하늘을 흔들기 위해 솟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의 임무는 언덕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언덕이 적은 세상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Jori Graham, “A Call to Appreciate Intellectual Excellence,” *Vision*, 5권 (1), 7쪽.

조리 그래함은 1996년 “The Dream of the Unified Field: New and Selected Poems”로 시 부문에서 풀리처 상을 수상했다. 그래함은 또 맥아더 연구 기금(MacArthur Foundation Fellowship)을 포함한 많은 영예와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간단한 예스: 조기입학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챈다. “아이가 삼푸 병을 읽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3살짜리 아들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그때 부모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대부분의 교육구 (school district)는 유창하게 읽고 계산을 할 줄 알며 사회적으로 성숙하여 만나질 동안 부모를 떠나 있을 준비가 된 4살 어린이의 입학에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탁월한 재주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뛰어나다.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도 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내어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탁월한 재주를 지닌 아이들이 그들의 가능성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학교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주별 영재교육 보고서(State of the States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Report, 2001-2002)”에 의하면, 많은 주가 조기입학에 대한 명백한 정책이 없다. 학교에 분명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읽을 줄 알고 배우길 갈망하며 더 배우고 싶어하는 4살 어린이가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이다. 그런데 정책적인 장벽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교육구가 만 5살 미만의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인상을 찌푸린다.

그런 꺼림은 문제를 낳는다. 아이가 학교에서 지루해할 수 있고, 너무 쉬운 내용을 다루는 교실에서 수 년간 머무를 수도 있다. 대개 여러 학년이 지난 뒤 속진이 결정되며 그때쯤이면 중요한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뒤이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예스가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영재 유아의 일반적 특성

- 조기 언어 능력
- 뛰어난 수학 능력
- 오랜 집중력
- 조기 추론 능력
- 시간에 대한 조기 흥미



“속진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연구조사가 밝혀낸 것과 대부분의 현직 종사자들이 믿는 것 사이에 것처럼 격차가 존재하는 다른 사안은 떠올릴 수가 없다. 속진에 관한 연구는 한결같이 긍정적이며 적절한 속진의 이점은 너무나 명백한 까닭에 교육자가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James H. Borland,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Planning and Implementing for the Gifted,
1989, 185쪽.

지루함의 요인

아이가 학교에서 도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최초로 눈치채는 사람은 대개 부모이다. 아버지는 아마 아이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이나 퍼즐을 건네면서 아이가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런 부모의 관찰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수없이 많다. 신중하게 조기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은 대부분 학문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잘해 낸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도전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조기입학을 함으로써 지루함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된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고 노력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신,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학습에 배정된 아이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습의 즐거움 가운데 일부라는 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대단히 똑똑한 아이들이 의욕이 없는 성인으로 자란 경우를 알고 있다. 학교는 너무 쉬웠고 게으른 길이 익숙한 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찍이 도전을 제시함으로써 무척 읽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무척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으로 자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어색한 공백 피하기

초등 저학년에서 일찍이 월반을 함으로써 잠재적 지식과 기술의 공백을 단지 몇 주 이내로 최소화 할 수 있다. 월반은 지식에 있어 장기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친구와 헤어지고 사귀기

우리는 때때로 월반을 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져야 함을 우려한다. 일찍 입학하고 동일한 학급으로 학년이 올라간다면 수재 학생들은 친한 급우들과 헤어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입학 첫날부터 적절하게 배정된 셈이다.

게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많은 영재 학생들이 또래 가운데서 친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조숙한 경향이 있다. 우정에 관한 그들의 사고는 다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를 놀이 상대로 바라보는 나이에 영특한 학생들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재 학생들의 부모는 종종 그들의 자녀가 학문적, 지적 면에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양한 연령의 이웃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점을 발견한다. 그들이 즐기는 게임과 읽는 책은 연상의 아이들 수준에 가까우며, 연상의 아이들도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따라서 재능 있는 학생에게 월반은 친구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일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회적 측면

연구자들은 많은 부모가 손에 땀을 쥐고 자문을 구하는 질문을 조사해 보았다. 그 질문은 ‘학급의 다른 학생들이 더 나이가 많다면 내 아이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답변은 이렇다. 신중한 심사를 거쳐 조기입학이 허용된 수재 학생들은 대부분 연상의 급우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 사실 그들은 동갑내기보다는 자신과 관심을 공유하는 연상의 학생들과 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그런 통계의 이면은 일부 두려운 이야기의 근거가 될지도 모른다. 특별히 조기입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 생일이 여름이어서 어찌다 다른 아이들보다 어린 나이에 입학한 아이들은 연상의 급우들에 비해 미성숙한 면모를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나이가 준비상태에 대한 단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에 탁월한 재주와 성숙도가 합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속진한 아이에게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위 쥐기

어린 아이들은 학문적 재능은 뛰어날지 모르나 신체적 발달 면에서는 종종 또래 아이들과 유사하다. 그것은 쓰기, 자르기, 그리기 활동이 특별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로감도 또 다른 염려거리가 된다. 4살 아이는 6살 아이보다 더 빨리 피로를 느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운동기능이나 체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에 의하면, 유치원과 1학년에 일찍 들어간 아이들은 더 발달된 인지능력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연상의 급우들만큼이나 혹은 더 우수하다는 점이다.

속진을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은 관련 성인들의 태도이다. 그들이 정보에 밝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학생의 성공에 정성을 기울일 때 일찍 시작한 수재 학생들은 성공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초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순조로울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준비상태에 맞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조기입학은 늘 바람직한가?

조기입학 결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정의 시기이다. 막 게임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격이 학교 또는 급우관계와 어떻게 맞물릴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기입학은 되돌리기 힘든 결정이라는 점이다. 아이가 뛰어나다고 결정을 한 다음, 유치원이나 1학년 과정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교육자들, 학생 또는 부모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올바른 결정을 방해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중한 평가와 아이오와 속진 척도와 같은 지침 도구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도전적인 환경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입학 시기가 언제인지 부모와 교육자들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 아이오와 속진 척도 참조, 23쪽.



초등학교에서의 월반

아이가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교장실로 직행하여 월반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것이다. 어떨 때는 교사가 또래보다 훨씬 앞서가는 아이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학교가 자신의 아이에게 너무 쉽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여 불안해 할 것이다.

“따분해” 라는 말이 부모의 귀에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마치 주문처럼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많은 학교가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심화학습은 일부 수재 학생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한두 시간의 도전은 극도로 도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보다 적절한 해결책, 즉 대개는 속진의 한 형태이다.

“영재 아동에게는 속진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 라고 미시건 대학의 속진 전문가, 제임스 쿨릭 (James Kulik) 교수는 말한다.

쿨릭은 25년이 넘게 영재 아동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해 왔다. 그는 교사들이 속진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속진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교육 연구 분야의 다른 선두주자들도 큰 목소리로 동의한다. 하루 종일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월반 지지는 당연해 보이기만 한다.

쿨릭이 가장 뚜렷하게 알아챈 점은 속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월반을 한 학생들은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높으며, 월반은 학생들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그는 믿는다.

“그런 연구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라고 쿨릭은 말한다. “속진은 똑똑한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에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점이다.”



선생님에게 보내는 제니의 편지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제니는 담임에게 이런 편지를 씀으로써 속진 여부에 대한 토론의 길을 열었다. (영어 원문에는 문법과 철자법에서 몇 군데 실수가 발견됨 - 역주)

Dear Mrs. S.

I find that the work I'm being given is very discouraging because its much to easy. Most of it I know so I do the work catch on and I have to wait for the others to catch on. the grade I'd like to go to best would be college but since I can't could I have something more challenging. Say for Instance I could go to any Grade I want as long as long as its in Lincoln Elementary or Lincoln Middle School. I like to trie 5th Grade I dout it but it would be nice to go ther and see what its like. I don't care if I leave Lincoln Elementary cause I really don't have any thing really Inporntant or true friends that I'd miss

Sincerely, Jenny

아이오와 속진 척도 제2판 16쪽에서 발췌, 재인쇄함.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이들을
 내보이는 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가면 모두가
 실제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자라게 된다.
 여기서(워싱턴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
 그럴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약간 어리게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기분 좋은 일이다.”

워싱턴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 학생
 K. D. Noble, T. Arndt, T. Nicholson, T. Sletten & A.
 Zamora, "Different Strokes," *The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겨울판 1998/1999.

아이가 도전을 원하는가?

속진은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역시 쉬운
 조치는 아닐지도 모른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 미지의
 영토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동기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이가 학문적으로는
 훨씬 앞서 가지만 월반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속진은 도전을 간절히 원하고 앞서
 달리길 갈망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부모나 교사나 교장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을 달라고 애원한다면 속진이 올바른 길일 수도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된다.

일찍 싹트는 야망

8살 아이가 월반을 할 때 뜻밖에도 그 혜택은
 이 아이가 22살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속진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경력을 열망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학자들은 어떤 차이를 발견했는가?

1974년, 속진한 학생들의 58%가 석사학위를
 원했다. 그 외 아이들은 24%에 그쳤다. 1983년에
 이르러서는 대학교육이 삶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다른 학생들의 73%에
 비해 속진한 학생들은 88%가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을
 원했다.

이런 결과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속진한 아이들은
 야심만만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다.

향상되는 성적

속진한 학생들은 월반한 뒤 학문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보인다. 시험을 치면 속진한 수재 학생들은
 속진하지 않은 연상의 수재 학생들만큼이나 좋은 성적을
 거둔다.

따라서 시험은 월반한 아이들이 각 문제에서 새
 급우들과 맞먹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은 월반한 수재와 그렇지 않은 수재를 비교할 때
 드러난다.

월반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속진한 학생은 새로 올라간 학급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룹에 속할 것이다. 그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상적인 결과이다.

수학과 영어 성적은 대개 나이와 연관이 있다. 속진한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자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한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평점을 취득한다.

속진은 시간의 선물이다. 아이에게 있어 한 학년을 건너 뛰는 것은 재학기간의 12분의 1을 절약한다는 의미가 된다. 두 학년을 건너 뛴다면 그것은 재학기간의 6분의 1을 시간 때우기가 아닌 배우는 데 활용하는 셈이다. 속진한 학생 알렉시스 헨슨과의 인터뷰 참조, 45쪽.

효력이 약한 대안들

많은 학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영재 학생들의 학습과 사회적, 정서적 요구 문제에 접근한다. 보다 널리 알려진 접근법으로 능력별 수업, 심화 활동, 풀아웃(pull-out) 자료실, 학급 차별화, 독립 프로젝트, 협동 학습 등이 있다. 학교는 또 특별주제 프로젝트, 현장 학습, 체스,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 모든 접근법은 존치할 이유가 있으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요구 가운데 일부는 그런 심화 형태의 보조 수단으로 채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학생의 교육에 널리 기여하는 중요하고 유익한 활동임을 인정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플러스가 되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그런 활동을 추진하는 이들은 심화 활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런 접근법을 대안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재능이 보다 더 탁월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접근법 중 어느 것도 속진으로 얻어진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는 연구를 통해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는 능력별 수업조차도 교육과정이 속진될 때만 영재 아동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속진을 후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이 속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D. Lubinski, R. M. Webb, M. J. Morelock & C. P. Benbow (2001), “Top 1 in 10,000: A 10-year follow-up of the profoundly gifted,”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718-729쪽.



수치로 따지자면

매년 20만 명에 이르는 7, 8학년 학생들이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또는 ACT(American College Test)와 같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다. 그 중 대다수가 자신보다 4-5살이 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만큼 좋은 점수를 얻는다.

그런데 바로 그 20만 명의 성적이 우수한 어린 수험생들(중학교 재학)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얻는 특별히 재능 있는 아이들이다.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학년 과정을 3주 만에 습득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은 SAT에서 최고 득점자 가운데 몇 명은 중학생으로 그들은 고등학교 한 학년 과정을 단 10일만에 습득할 수 있다.

심화활동으로 충분한가? 심화활동은 학생이 또래 그룹에 머물게 되므로 교사는 사회적 또는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재 학생을 위한 심화활동이 보다 빠른 속도,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하나의 개입방식으로 효과가 없다.

교육과정은 속진하지 않고 영재 아동들을 한데 모으는 것만으로는 최소한의 학문적 이점이 있을 뿐이다. 핵심 요소는 속진된 교육과정이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속진하지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점을 발견했다. 그 학생들에게 정규학습과 동일한 교육과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효과는 제로였다.

특별히 조직된 수학 학급이 고급 수학을 배우지 않을 때 학문적 이점은 전무했다. 따라서 보다 도전이 되는 내용 없이 수재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은 학문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 특별 학급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면 학문적 이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속진만큼은 아니었다.

분명한 점은 수재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최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우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문적 효과보다는 자녀의 친구관계를 더 염려한다. 하지만 얘기할 사람 하나 없는 똑똑한 외톨이의 이미지는 연구자들만이 찾아낸 것이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속진한 학생들은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자부심과 속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향상된 자부심이 높은 성취 수준으로 이어지는지, 높은 성취 수준이 향상된 자부심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똑똑한 아이가 자신만큼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배울 때 그의 학문적 자부심은 어느 정도 부풀려질 수 있다. 한편, 속진을 통해 자신만큼 아는 학생들과 있게 되면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부심이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큰 연못 안의 작은 물고기(Little-Fish-Big Pond)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학문적 자부심에 있어 그런 변화는 대개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아이는 빨리 자신감을 회복한다. 추가 보너스가 있다면, 속진한 학생의 자부심은 새 학급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올라간다는 점이다.



월반 결정: 아이오와 속진 척도 (Iowa Acceleration Scale)

월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결정이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증된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아이오와 속진 척도(IAS)*는 미국 전역 50개 주만이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IAS*는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이의 나이, 학교의 역량, 형제가 같은 학년에 다닐 것인지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10개 부문 척도는 학교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 시작하여 IQ, 형제관계, 속진에 대한 학생의 느낌 등으로 나아간다. 그런 다음, 학교의 역사와 다양한 능력, 적성, 성적 테스트가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요소를 종합한 점수가 산정된다.

*IAS*는 속진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요소를 따져보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 교장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10개 부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매뉴얼이 딸려 있으며, 사례 연구 및 양식 샘플도 포함되어 있다. *IAS*는 또 속진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교육자와 학부모를 위해 관련 연구의 개요도 제공한다.

알기 쉽게 구성된 *아이오와 속진 척도* 서식은 학교가 조직적으로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도와준다. *IAS*는 모든 교육구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아이오와 속진 척도와 IAS 매뉴얼(제2판)*은 Great Potential Press나 www.giftedbooks.com에서 구입 가능함.



재능 찾기 (Talent Search) 혁명

어떤 한 사람이 재능 찾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전까지 명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가 주변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꿈쩍없이 답답하게 갇힌 신세였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줄리안 스탠리 교수는 60년이 넘게 수학에 뛰어난 학생과 시험에 대해 연구해왔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12살짜리 학생을 만났다.

“대학원생들에게 포트란(Fortran)을 가르치고 있는 12살짜리 중학생을 발견했어요,”라고 스탠리 교수는 회고한다. “1969년 1월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13살의 8학년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아무 준비 없이 SAT(대학수능시험)를 치도록 했는데 놀랄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그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우수 고등학교 여러 군데를 찾아가 그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을 수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두 거절하더군요.”

그 소년은 지역 학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아무런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13살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물리학, 컴퓨터 공학, 미적분학을 수강했는데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17살까지 홉킨스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모두 끝냈답니다.”

“신기하더군요. 그가 유일하게 그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스탠리 교수는 말한다.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왔어요. 그것이 동기가 되었답니다.”

1971년 스펜서 재단은 수학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돕도록 스탠리에게 266, 100불을 지원했다.



재능 찾기란 무엇인가?

재능 찾기는 영재교육에서 일급 비밀처럼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독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도 재능 찾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

뛰어난 학력을 판별하기 위해 매년 2-9학년 학생들이 개발된 시험을 치른다. 때로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때로는 ACT(American College Test), 때로는 개별 과목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시험을 시행한다.

많은 아이들에게는 그때가 1년 중 진짜 도전을 받는 유일한 시간이다.

재능 찾기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여름 심화 프로그램이나 도전과 교우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재능 찾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건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는 곧 힘이다. 재능 찾기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이를 알고 있다면 부록 F에 수록된 센터 가운데 한 곳에 연락하길 바란다.

재능 찾기 경험담

케이티 맥퀘이드는 아이오와 주 거스리 센터에서 자라나 초등학교 때 재능 찾기에 응시했다. 그 대회를 통해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막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일을 기억한다.

“수업을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 여름 프로그램에서는 공부를 사랑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6학년 때 베오울프(Beowulf, 고대 영문학의 최고봉이자 유럽 속어로 쓰여진 최초의 영웅서사시 - 역주)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그 발췌문이 거기 있었어요. 그 해 여름, 저는 성적을 위해서만이 아닌 배움을 위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최초의 재능 찾기

다른 위대한 꿈들처럼 그것도 작은 데서 출발했다.

“1971년 여러 명의 수재 소년, 소녀들과 일을 하고 있었어요,”라고 스탠리 교수는 말한다.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수재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문이나 사람들의 입 소문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재 학생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성공적이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스탠리는 재능 찾기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좀 더 진지하게 전면적으로 재능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1972년에 볼티모어 지역에서 450명의 수재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재능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고 학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스탠리는 일생의 과업으로 똑똑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착수했다.

“그 해 여름, 빠른 진도로 짜인 수학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 아이들을 찾아낸 이유는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2명에서 20만 명으로

1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12명이 되었고, 그러다 재능 찾기는 이내 수천 명을 포함하게 되었다.

“1979년까지 2천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라고 스탠리는 회고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영재 청소년을 위한 존스 홉킨스 영재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Talented Youth, CTY)를 설립했어요.”

“오늘날 CTY와 듀크대, 노던웨스턴 대학, 덴버 대학교에 부설된 영재 센터는 20,000-25,0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만 명의 7, 8학년 학생들이 재능 찾기에서 SAT를 치릅니다.”

5년마다 총 100만 명의 특출한 중학생들이 적어도 4년 일찍 대입 시험을 치른다고 상상해보길 바란다. 그 중 많은 수가 놀랄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 그들은 단지 점수를 얻기 위해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 찾기 시험이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 중 많은 학생들이 진정한 도전을 주는 과정을 수강할 기회를 얻게 되며, 또 자신만큼이나 배움에 목말라하는 또래를 만날 수도 있다.



재능 찾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능력 평가를 위한 진짜 테스트

“우선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지적으로 조속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어요,”라고 줄리안 스탠리 교수는 말한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며 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덜 우수해요. 재능 찾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모두 학력이 최소한 상위 5%에 속합니다. 그건 또래 20명 중에서 1등이라는 의미지요.”

응시자를 위한 기회

재능 찾기는 속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능 찾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여름에 재능 찾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 속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배움을 사랑하는 친구 사귀기

여름 프로그램은 학문에 빠진 다른 수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지적 동무가 된다. 많은 응시생이 여름 과정에서 단짝 친구들을 발견한다. 여름 프로그램에는 속진 학습내용과 우수한 또래집단이라는 최상의 두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대학 맛보기

대학 캠퍼스에 머물면서 대학 과정을 수강하는 것은 아이에게 앞날에 대한 인식을 미리 심어줄 수 있다. 그것은 도전이 될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갖도록 장려하는 일이기도 하다.

재능 찾기에 참여하는 방법

대학에 부설된 많은 센터가 2-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재능 찾기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응시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부록 F 참조.



고등학교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선택

미국의 고등학교는 많은 학문적 재능이 개발되지 않은 채 숨어있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교외에 위치한 거대한 햇빛 건물 고등학교에서 혼자만 외롭게 뛰어난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그 많은 유명한 영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의하면 놀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기록적인 속도로 밀어 붙여야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재능 찾기는 현재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된 학생들의 수가 얼마인지 짐작하게 해준다.

그들은 분명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실력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증명한다.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멋짐과 시시함

일부 영재 학생들은 어려운 결정에 부딪힌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 해도 우등생이 될 것인가? 또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실력을 가능한 한 낮출 것인가? 연구자들은 놀랍게도 평범함에 대한 압박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학생이 되면 일부 영재 학생들은 이미 잠복해서 숨어버린 상태가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태도가 중요해 지는 시기이다. 친구와 행동에 대해 '멋지다' '시시하다'라는 딱지가 붙여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멋진 것이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겐 때때로 무관하거나 재미없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씩씩한 발견이며, 특히 시시각각으로 정체성과 자부심이 변하는 번덕스러운 시기에 나타난다.

전형적인 10대 아이들은 파티와 친구, 사랑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 그들은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 학문적으로 도전 받기를 원하며, 배움을 사랑하고 많은 분야를 좋아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매우 다른 교육과정, 즉 의욕적이며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 영재 학생들은 비범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태도는 도전적인 교육과정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만약 그와 같은 비범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10대의 야망은 지루함과 기회를 놓친 삶으로 쉽사리 바뀔 것이다.

전쟁과 평화, 실직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영재 고등학생을 속진하는 문제는 갑자기 대중의 관심거리가 된다. 경제 공황의 위기 때 속진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누구도 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그대로 재학하도록 놔 두면 최소한 풀타임 직장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940년대와 같은 전쟁의 시기에는 고등학생들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속진되었다. 국가는 보다 유능한 기술자와 교사를 몹시 필요로 했고, 고등학교와 영재 학생들은 그런 부름에 응했다.

교육은 우리 국가의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적절한 기회를 조화시키는 것이 수월성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기 위해 국가적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쓴살같이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그 방안을 널리 알려야만 한다.

수월성은 교육의 핵심이지, 위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AP)에 관한 모든 것

2004년, 100만이 넘는 학생들이 190만이라는 엄청난 횟수의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시험에 도전한 사실을 아는가? 그것은 100만이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수준의 수업을 수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 포드 재단이 최초로 생각해낸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속진 프로그램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의 혁명은 크고 작은 도시를 막론하고 미국 전역 곳곳의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학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은 도전적이며, 그 내용을 소화하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실질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시험은 과학의 모든 분야, 일부 외국어, 문학, 수학, 미술, 음악 등 총 34과목에 걸쳐 실시된다. 현재 미국 고등학교의 60%가 적어도 한 개의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 3명 가운데 1명이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수강해왔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교실로 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대학에서 따분한 선(先)취득 과목이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기초 과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일찌감치 더 흥미롭고 더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의 이점 가운데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수강하고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시험을 치름으로써 학생들은 일찍 대학을 마칠 수 있으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AP) 과정이란 무엇인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대학 1학년
과정을 말한다. 전국적인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시험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는가?

-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수강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33%이다.**
-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하나를 수강한 대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59%이며,**
-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두 개 이상을 수강한 대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확률이 76%에 이른다.**

웹사이트 <http://www.ed.gov/pubs/Toolbox/toolbox.html> 에서 *Answers in the Tool Box: Academic Intensity, Attendance Patterns, and Bachelor's Degree Attainment* 참조

태도를 변화시키는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과정을 선택하는 100만이 넘는 학생들은 사회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쉽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과 시험을 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출신 학생들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답은 사실 쉽게 나왔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출신 학생들은 의욕적이고 야망을 가진 인물이 된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43%가 만 33세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런데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경우 그 비율이 76%로 치솟는다.

이런 상상을 해보라.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교실로 걸어 들어가는 4명의 학생 가운데 3명이 15년 이내에 석사학위를 들고 무대를 가로질러 걷는다.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만약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른 속진 프로그램들이 더 널리 활용된다면 미국의 교육적 성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속진을 새로 정의하는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의 경이적인 성공은 속진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외톨이인 영리한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오랜 속설을 무너뜨린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프로그램의 대단한 규모는 매년 100만이 넘는 학생들이 그 기회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은 평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것은 학생이 대학 수준으로 짜인 의미 있는 학습 내용의 일정한 분량을 안다는 것을 입증한다. 비록 그 학생이 그 주에서 가장 빈곤하고 작은 고등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시험과 프로그램은 질을 보장한다. 그것은 그 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질적 교육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미국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고르게 한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후원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그 수업을 소수집단 비율이 높거나 저임금 가정이 많은 학교로 확산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또 더 많은 시골 학교들을 포함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프로그램의 주요 이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더 많은 고등학교로 확산될 수록 모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목표는 미국 고등학교의 100%가 참여하는 것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의 사회적 이점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프로그램의 규모가 널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이점을 특히 강조한다. 바로 지역성이다. 고등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친구와 또래 집단, 부모와 1, 2년 정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문적으로는 앞서가지만 여전히 풋볼 게임, 치어리더 연습, 집에서 해 주는 밥, 졸업파티 등을 즐기고 싶어 한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은 정서적으로 집 가까이 머물며 안정을 갖도록 하는 한편, 지적으로 멀리 여행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이 전부 아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대학 과목들도 일찍 수강하고 심지어는 대학에 1, 2년 일찍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이 훌륭한 해결책인 한편,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의 효과

라체어라 잭슨(La'Chaira Jackson)
아이오와 주 디모인

라체어라 잭슨은 고등학교 때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6과목을 수강했다.

“나는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수업의 과제는 늘 도전적이었다. 그것은 또 나를 앞서가게 만들었다. 나는 15학점을 손에 쥔 채 아이오와 대학을 시작했다.”



대학에 일찍 들어가기

우수한 고등학생을 위한 최선의 장소는 때때로 대학일 수 있다. 급진적인 해결책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그건 미국 역사의 초기부터 행해져 오고 있는 일이다.

사실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탁월한 학생들이 남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단일 교실 학교를 졸업한 그들은 종종 만 18살 이전에 하버드나 예일로 향했다.

그런 관행이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조기입학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그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대학에 일찍 들어가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스터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지방 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지루함이 요인이 된다. 탁월한 학생들은 접할 수 없는 학문적 도전에 목말라 할 수 있다.

그런 학생은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수 년간 기다려 왔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즈음이면 훌쩍 뛰어 올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천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방송에서 소개하는 조기 입학생들은 주로 현저하게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간 보기 드문 학생들이다. 하지만 조기 입학생들은 나이와 능력, 감정적 성숙도, 가정 환경 면에서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다른 대학 1년생보다 단지 한두 살이 적을 뿐이다.

“우리는 만 10살에 대학에 들어간 몇몇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아왔어요.”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줄리안 스텐리 교수는 말한다. 그는 대학에 일찍 들어간 학생들, 대개는 만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조기 입학생 당사자들에게는 그 경험이 그렇게 극단적인 이동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어떤 학생들은, 특히 일반 또는 과목별 속진을 한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대학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지냈다. 그 학생들은 제때 들어온 대학 1학년과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다.

다른 조기 입학생들은 전에 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대학에서 주관하는 여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을 떠나 이미 연상의 학생들과 대학 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역사회 대학 캠퍼스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다른 1학년 학생들보다 대학 환경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다.

과정이나 지역사회 대학 수업 참여와 같은 형태를 통한 대학 생활에 대한 조기 경험을 위한 시도는 일부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를 미리 맛보는 셈이 된다. 이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과정을 듣기 보다는 대학에 정규학생으로 입학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모든 조기 입학생들이 미리 대학을 맛볼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더 정확하게는 선택의 부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대학에 들어간다. 그 학생들은 여름 학교나 지역사회 대학을 수년간 경험한 조기 입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조기 입학생을 위한 선택

조기 입학생들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다. 기숙사에서 지낼 수도 있고 집에서 통학을 할 수도 있다. 또 선발 기준이 대단히 까다로운 대학을 선택하거나 개방 입학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사회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조기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또래 그룹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약속한다. 때로는 기숙사를 특별히 배정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노스텍사스 대학의 수학 과학 텍사스 아카데미(Texas Academy of Mathematics and Science, TAMS)는 매년 200명의 10학년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과 대학 1학년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며, TAMS는 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도 수여한다.

워싱턴 대학교의 조기입학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순조로운 진학을 돕는 특별 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바드(Bard) 고등학교의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은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뉴욕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메리 볼드윈 대학(Mary Baldwin College)은 PEG(Program for Exceptionally Gifted)라는 조기입학 프로그램을, 웨스트 조지아 주립대학은 조지아 고급 아카데미(Advanced Academy of Georgia)을 운영하여 지원한다.

조기 입학생들은 주변의 가능한 선택들을 신중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에 머물면서 지역사회 대학에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동시에 마치면서 두 개의 졸업장을 취득하는 길도 있다.

여름 학교나 월반과 같은 선택이 보다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일찍 대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학생들은 또래보다 단지 약간 빨리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의 고등학교가 미래에는 보다 도전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이 확대되고 예를 들어 입학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주립 고등학교와 같은 다른 속진 프로그램이 점점 활용 가능 해 지면서 고등학교에서 적절한 도전을 접하는 길도 열릴지 모른다.

선별된 조기입학 프로그램 목록은 부록 F 참조.

사회적 우려

모든 조기 입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제 나이에 들어간 학생들도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종종 학문적, 사회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법적 자동차 운전 가능 연령이 대학 동료들 보다 1-2년 더 늦는 것과 같이, 어리기 때문에 일부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 조기 입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대학 생활 경험에 만족한다.

조기입학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긴 하지만 조기 입학생 전부가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가 조기 입학에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그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줄리안 스탠리 박사는 그것을 개인 사진 대 단체 사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대학에 남보다 일찍 들어간 학생들 중 일부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 있긴 합니다.” 라고 스탠리 교수는 말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들어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조기 입학생 그룹을 상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정규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일찍이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또는 감정적 어려움 없이 학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라고 스탠리 교수는 말한다.

남보다 한발 먼저

대학에 일찍 들어가는 것은 총 재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

“졸업을 하고 주변 상황을 돌아볼 1년의 여유기간을 가지게 되어 신이 나요.”라고 아이오와 주 허드슨 출신의 대학 조기 입학생 알렉시스 헨슨은 말한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설까 해요. 곧바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학과 같은 일부 분야는 학사학위 이후 8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속진을 통해 대학에 일찍 들어간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에 일찍 진출할 수 있으며, 여분의 시간은 가족과 직장생활 간의 균형을 좀 더 수월하게 유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한발 먼저 출발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심거리를 탐구하는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만 20세에 대학을 마친 조기 입학생들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전공 외 분야에서 임시직을 구하며 즐길 시간을 가지면서 여전히 순조롭게 자신의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수년 뒤 인터뷰에서 일부 조기 입학생들은 속진 경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전통적인 진로에서 가능하지 않은 여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대중의 인식은 조기 입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 전문적 탐구만을 위한 시간을 다른 한편으로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조기 입학생들은 그것이 아마 최고의 교육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학 조기 입학생은 말한다

제임스 에델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자라나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1년 일찍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다. 그는 아이오와 대학의 조기 입학 프로그램인 예술 과학 공학 미국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Arts, Sciences and Engineering, NAASE)에 입학하여 영어와 철학을 전공하고 있다.

왜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기로 결정했는가?

나는 2학년 때 이미 졸업반처럼 행동하고 다녔다. 3학년을 다녔다 해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침체돼 있었을 것이다. 학교는 너무 쉬웠고 우리는 수업을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를 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있었다.

NAASE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편으로 학교 소개 책자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받은 학생은 나 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문제에 대해 상담교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졸업을 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라는 말부터 했다.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를 일찍 졸업한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그런 경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 떠남으로써 분명 길이 열렸고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건너편 아이들이 있다.

학교를 떠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 보았다. 그것이 얼른 자라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결국 훨씬 일찍 자라 버린 셈이 되었다.

대학에서 나이가 문제가 되었는가?

조기입학을 대개는 참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했다. 설명하기 힘든 일이라 이젠 그냥 넘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이오와 대학을 1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돌아간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했다.

만 17살이 넘자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대학이 무진장 맘에 들었다.



공공 정책: 열망의 법제화

미국은 기본적인 능력에 집착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조니는 쓸 줄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된다.

정치인들은 낮은 점수를 치켜 흔들면서 평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최근 한 무더기의 정치적 중점정책들이 교사들을 시험에 집중하도록 몰아 부쳤다.

시험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지만, 모든 아이들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이어지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지당한 이야기이다.

평등은 모두를 위한 학문의 기회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의 교사들은 형평성의 개념과 사회 정의의 꿈에 대한 열렬한 확신을 갖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기회를 주겠다는 희망을 품고 교실로 향한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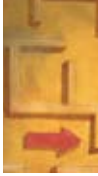
“모든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재도 포함됩니다”라고 밴더빌트 사범대학 학장 카밀라 벤보(Camilla Benbow) 박사는 말한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수월성을 잇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모든 정치인이 기본 능력을 놓고 논쟁을 하는 동안,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높이는 데 관한 목소리는 수그러든 것이다.



거부당한 천재(Genius Denied) 웹사이트

<http://www.geniusdenied.com>에 의하면 미국의 K-12학생 수는 47,846,000 명이며, 그 중 영재는 약 5% 또는 2,393,000명이라고 한다.



“교육적 속진의 경우

다행히도 바뀌어야 할 것은 문서상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제임스 갤러거 (James Gallagher)
채플힐 소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영재교육 정책문제 전문가

법과 태도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는 반면, 영재를 위한 법적 보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주가 해마다 교실에서 도전 받지 못하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지시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법과 공공정책은 속진문제에 있어 미미한 역할을 해왔다. 속진의 미래는 정책이나 법의 변화에 앞서 태도의 변화에 달려있다.

리하이 대학(Lehigh University)의 페리 지르켈(Perry Zirkel)은 영재를 위한 법적 사안에 대한 글을 널리 써 온 변호사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s. Board of Education)* 사건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여전히 교실에서의 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과거 브라운은 피부색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 행위에 법적 중지부를 찍는 여정에 나섰다. 오늘날 속진에 대한 변화된 태도는 출생일자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 행위에 중지부를 찍고자 하는 여정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늘 신속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첫 번째 몸부림은 미국의 평등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타의 모든 노력처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미국의 영재에 관한 대화에 속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투쟁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정책의 변화로 끝날 것이다.

대중 매체

교육 연구에 관한 저널들은 속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연구로 가득 찬 반면, 대중 매체는 그 메시지를 아직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자녀의 일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보통 그러한 연구에 대해 모른다.

미국의 많은 사회적 운동은 헌신적인 기자들에 의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미국의 영재를 위한 희망은 부분적으로 매체에 달려있다. 기자들이 이처럼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 국가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공공정책은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영재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미국 입법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여론을 바꾸는 길

속진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서 필요한 주요 부분은 정보와 태도이다. 채플힐 소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제임스 갤러거 교수는 공공정책을 바꾸는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속진을 했던 성인들과의 인터뷰를 홍보한다.
- 조기입학에 대한 시범 법안을 개발한다.
- 영재 아동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자들과 동맹을 맺는다.

학부모와 교육자, 관심 있는 시민은 영재 아동들이 결국은 확실하게 대중의 관심을 얻도록 지역 매체 및 정치권 대표와 접촉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진짜 희망은 대중의 손에 달렸다. 학부모와 교사와 교장이 속진에 관한 진실을 접하게 될 때 그들은 선출된 공무원들이 영재 학생을 지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국가의 생존은 분명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본 능력에 달린 반면, 우리 국가의 발전은 우리가 수월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관심 있는 시민은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미국은 지루해 하는 교육이나 수년간의 부적절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우리의 학생들을 잃을 여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교육 정책을 바꾸어야만 한다.

*NAASE는 아이오와 대학의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인 국립 예술, 과학, 공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Arts, Sciences and Engineering)를 가리킨다.

대학 조기입학

캐서린 허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재능 찾기에 응시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우편물 수신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고 하루는 아이오와 대학의 NAASE 프로그램에서 보낸 책자를 받았다. 그래서 허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본 시험 하나 때문에 대학 조기 입학생이 되었다. 그녀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허쉬가 최초였다.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1년 일찍 졸업한 학생들이 있었는가?

내가 알기로 1년을 완전히 건너뛴 학생은 없었다.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가?

전적으로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녔다 해도 대학 1학년 때만큼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NAASE*가 뿌리칠 수 없는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는 대학 생각을 하면 언제나 기분이 들쭉했다.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신이 나지 않아. 하지만 대학은 정말 가고 싶어.' 나는 늘 대학에 대해 정말로 들떠 있었다.

뭔가 놓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졸업식이나 동창회와 같은 큰 행사는 참석하러 갈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서의 일상 생활은 그리지 않았다.

1년 일찍 입학하면서 무엇이 염려스러웠는가?

내가 일 년 일찍 들어 간 걸 다들 알아 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 몇 달이 지나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몰랐다.

나이가 정말 문제가 되었던 유일한 시간은 내가 아직 만 17살이었을 때다. 나이 때문에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약간 제한을 받았다. 한번은 선거가 있던 해 정치학 수업 시간에 다들 누구를 찍을 것인지 토론을 했는데 나는 17살이라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때가 강의실에서 나이가 튀어나온 유일한 경우였다.



돈이 말해 주는 것: 속진의 재정적 측면

신문 표제는 해가 갈수록 추악해 진다. 대학 등록금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앞서고 있으며, 종종 임금 인상률의 2배, 3배 또는 4배까지 뛰어 오른다.

2003-2004년,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사립대학 1년 등록금은 평균 19,710달러로 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립의 경우 1년 평균 학비는 4,694달러로 14.1%가 인상되었다. 그것은 임금 표준 인상률 3.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학비가 오르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줄어드는 점을 교육자들은 실망스럽게 바라본다. 중산층 학생들은 많은 대출금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종종 제2의 용자금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 등록금을 12%에서 25%까지 깎아 내릴 길이 있다면 어떨까?

한 학기를 일찍 졸업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8분의 1을 절약하며, 1년 일찍 졸업하면 4분의 1을 절약한다. 비슷한 식으로 대학에서 수강할 학점 수를 줄이기 위해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학점을 이용하는 학생은 가족이나 자신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보다 엄격하고 의미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을 보다 빠른 속도로 마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더 빨리, 더 높은 수준에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속진 프로그램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용

일반은 경제적이다. 그 말은 기껏해야 새 책상 하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2학년 교실의 책상을 3학년 교실로 옮기는 수고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교사를 채용하거나 개인교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납세자에게는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부 아이들의 재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

“속진에 관한 한, 주요 비용은 태도입니다”라고 아이오와 대학의 니콜라스 콜렌젤로 박사는 말한다.

교사는 속진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은 최근 연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표에 사인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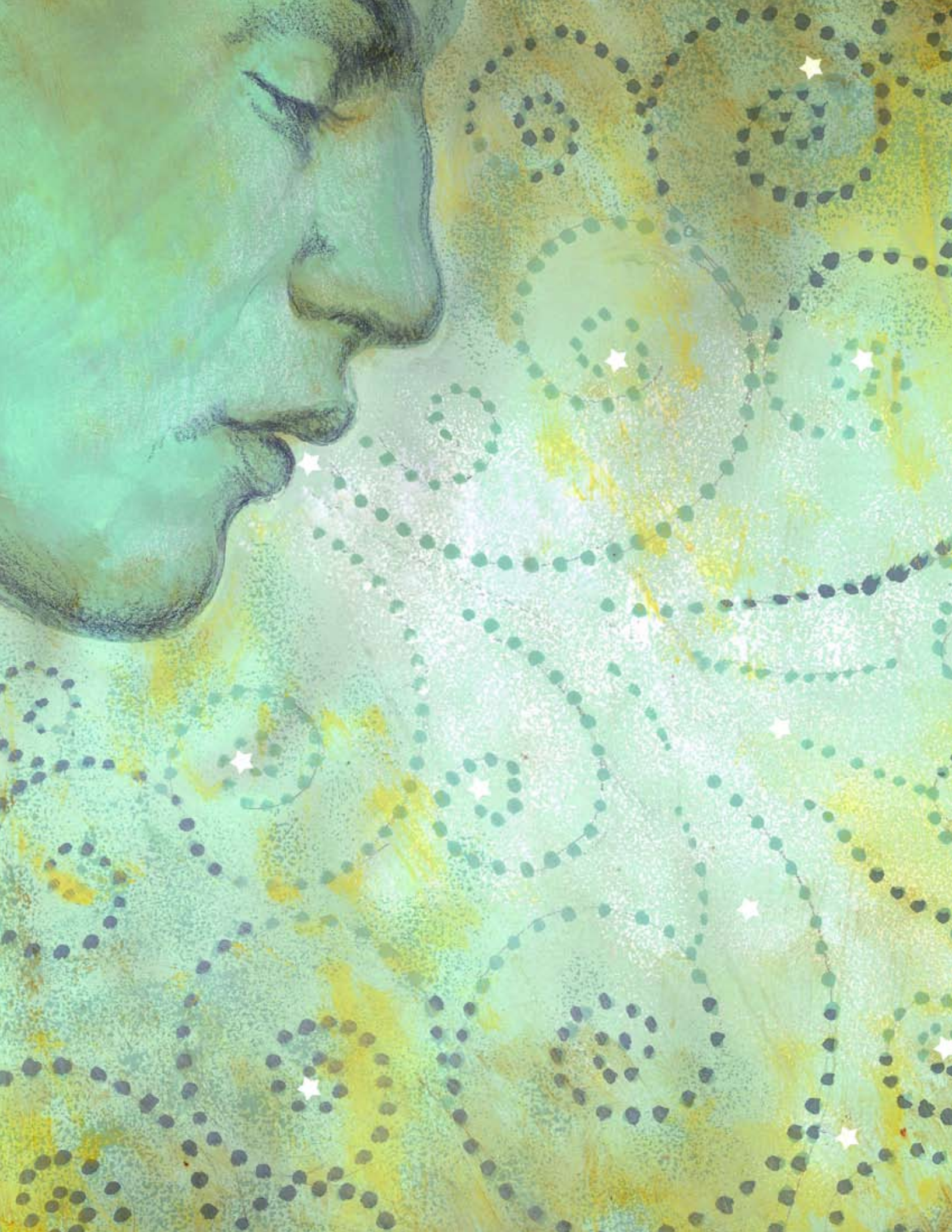
학부모에게도 속진은 경제적이다. 개인교수나 특별 캠프 또는 다른 심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신, 자녀를 보다 적절한 학급으로 옮기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학부모는 또 따분해하고 걷도는 아이에게 드는 별도의 비용을 피할 수도 있다.

만성적인 지루함을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수년 세월과 금전을 허비하는 대신, 간단하게 새 학급으로 옮기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선 사항을 기억하라

대학 등록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적 결정에서 돈은 결코 우선 사항이 아니다. 아이의 안녕이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속진을 통해 아이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앞서 가고, 교육구와 학부모는 재정적으로 앞서 간다.



속진에 관한 목소리

학생의 관점

속진 과정 내부에서 바라 본 속진은 실제로 어떤 것일까? 아이오와 주 소도시 허드슨에서 자라난 알렉시스 헨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현재 아이오와 대학 의학부 예과 학생이다.

자신의 속진 경험을 묘사한다면?

나는 6학년 때 월반을 했고 3학년에서 8학년까지 수학 과목만 속진을 했다. 또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미적분학을 수강했는데 교육구가 작다 보니 그것이 유일한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과정이었다. 그리고 대학에 1년 일찍 입학했다. 그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나는 참으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속진이 힘들었는가?

7학년 때 과목별 속진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대학이 내게는 더 큰 문제였다. 내 학습 기술이, 말하자면 그 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에, 녹이 슨 것 같았다.

그 점은 아마 속진할 기회가 아예 없었거나 더 많은 시간을 지루하게 보낸 학생들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NAASE는 아이오와 대학의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인 국립 예술, 과학, 공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Arts, Sciences and Engineering)를 가리킨다.

그 경험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가?

5학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과 함께 7학년으로 속진을 했는데 그 점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둘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친구를 사귀고 상황에 부딪혀 나갔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곳 NAASE* 프로그램에 12명의 조기 입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급이 있다. 우리는 우등생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했다.

아이오와 대학 벨린 블랭크 센터(Belin-Blank Center)에서 대학원생이 2주에 한 번 방문하여 우리와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우리 층의 어린애들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다. 하지만 서로 알게 되자 다들 우리를 좋아했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먼저 운전면허증을 땀다. 그래서 대부분 나를 태우고 다녀야 했다. 이제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급적 내 나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내려다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이다. 그건 어리더라도 뭔가 할 능력이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졸업을 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기간을 1년 갖게 되어 신이 난다. 아마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쉬게 될 것이다. 곧바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속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내게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다. 이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국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다른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래 그룹은 중요한가?

“대학 조기입학은 또래 그룹이 있거나 혼자이거나 일반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런데 그룹을 지어 일찍 들어가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 동일한 경험을 동시에 공유하는 다른 수재 학생들과 지내는 것은 위로가 된다.”

니콜라스 콜랜젤로 박사, 아이오와 대학

교육청장의 관점

레인 플러기(Lane Plugge) 박사는 아이오와 시 교육청장이다. 아이오와 시 교육구는 학문과 예술, 운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12 교육청장인 저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보고 나뉠 긴장이 됩니다”라고 플러기는 말한다. “저는 대부분의 K-12 교육구가 속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대치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는 왜 학교가 속진을 주저하는지 설명했다.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진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플러기는 자신의 교육구에서 속진은 꽤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한다.

“10,500명의 학생 가운데 5명 정도의 학부모만이 학기 중에 찾아와 속진을 거론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학부모가 언급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은 그 말을 꺼내기를 꺼립니다. 그 5명 가운데 2-3명의 아이가 실제로 월반을 했어요.”

플러기는 이 보고서를 환영하는데 그건 속진에 관한 교육자들의 지식을 늘리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아이들의 지식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장 플러기는 왜 교사들이 속진의 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교육학자들을 위해 조언을 제시한다.

“K-12 지역사회가 속진에 대해 안다고 짐작하지 마세요. 그들은 모릅니다. 보고서 하나를 발행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의 관점

아이오와 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로렌 리스(Lauren Reece)는 어릴 때 속진을 했으며, 그런 긍정적인 경험은 학생들의 속진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의 최우선 과제는 해당 교육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니까요”라고 리스는 말한다.

많은 교육구가 이중 언어자, 이민자, 빈곤층 및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학생들을 상대해야 한다. 오늘날 대화의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어요”라고 리스는 말한다. “이 학생들은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점은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2002년에 통과된 연방법)이 뚜렷하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안들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리스는 <기만 당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희망적이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데 대단히 큰 힘이 될 수 있어요”라고 리스는 말한다. “공립교육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한 가지는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부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능력이 가지각색인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는 트래킹(Tracking)이라는 발상으로부터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누가 속진이 필요한 똑똑한 아이인지 분간할 수가 없답니다.”

탁월한 학생들은, 설사 구분이 된다 해도, 충분히 관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천차만별인 교실에서는 교사가 영리한 아이들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라고 리스는 설명한다. “엄청난 관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육 전문가들은 대중이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 속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우려해 왔다. 교육위원회 의장 리스는 그 점에 대해 몇 가지 분명한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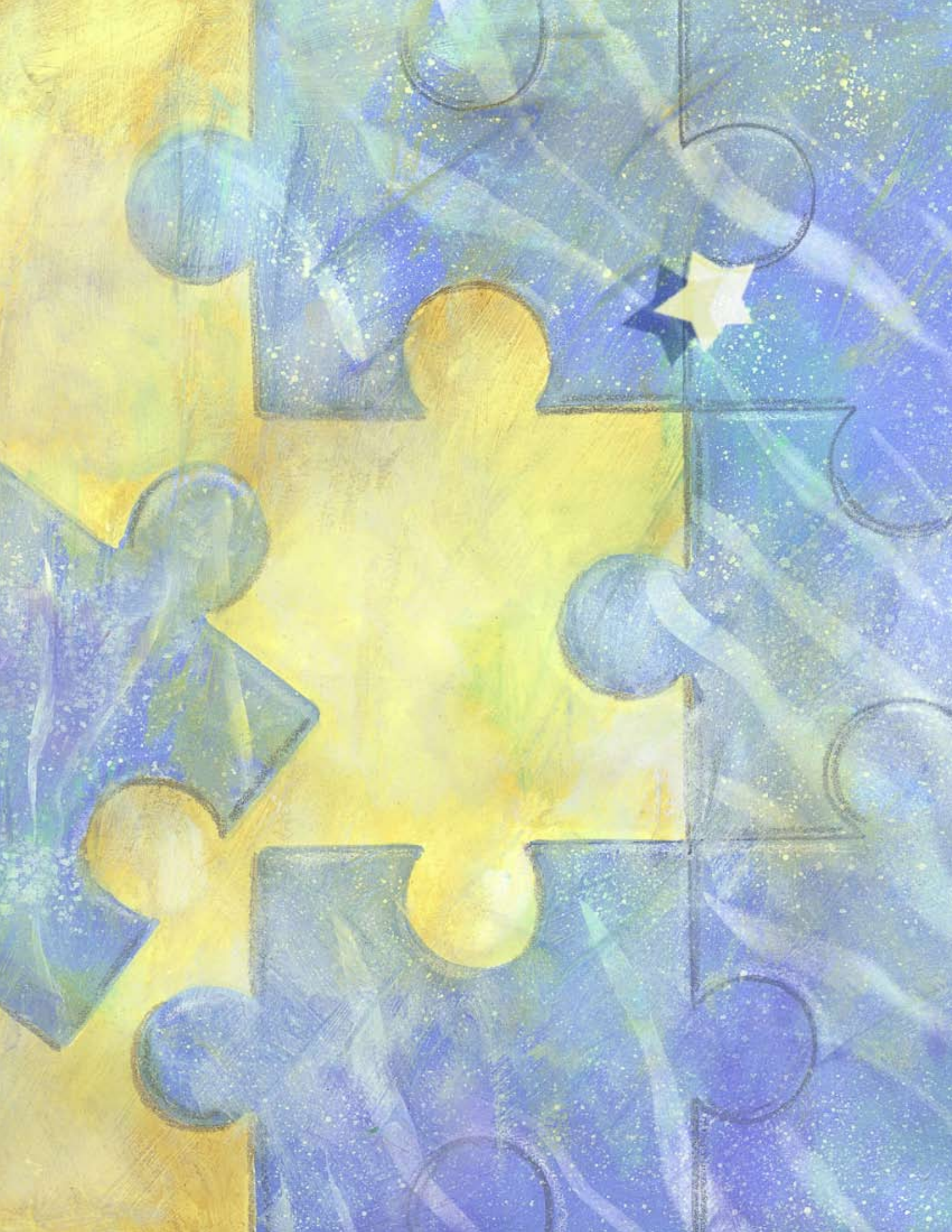
“그 연구를 바깥에 알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리스는 조언한다. “학부모는 직접 나서서 ‘내 아이가 아주 똑똑한데 교육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길 약간 주저해요.”

교육위원회도 빼놓지 말라고 리스는 제안한다. “영재 아동과 속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개발하세요. 그 목소리가 없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속진은 트래킹(Tracking)을 말하는가?

아니다. 트래킹은 1960년대 시행된 것으로 학생을 학습 능력별로 엄격하게 구별한 관행을 가리킨다. 그것은 논쟁의 소지가 많은 교육 방침이다. 오늘날의 능력별 편성 과정은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 트래킹이나 능력별 편성과는 대조적으로, 속진은 나이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다루는 데 있어 훨씬 더 개별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이다.

트래킹은 집단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고, 속진은 개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들이 도울 수 있는 길

효과적인 교사는 영재 아동을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첫째는 아이가 학문적으로 앞서 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아이를 새로운 도전으로 안내하며 학교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끝으로 아이가 속진에 준비가 되었는지 정확한 평가를 받도록 주선한다.

영재 아동은 자습이 가능하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혼자 배울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전문가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은 정보에 밝고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재 아동에게도 학급 담임이 중요해요”라고 벤더빌트 사범대학 학장이자 영재교육 권위자인 카밀라 벤보 박사는 말한다.

“훌륭한 교사는 다른 기회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거든요”라고 벤보 박사는 설명한다.

교사들이 알아야 할 점

정보에 밝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해도 교사는 영재 아동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녀를 지지하는 주요 인물이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교사와 행정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아이오와 대학 벨린 블랭크 센터 부소장 수잔 애설린(Susan Assouline)은 설명한다.

영재 아동의 현실은 그들의 요구가 지금까지 교사들에게 우선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요구는 교사들이 점점 더 과중해지는 업무에 직면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오늘날 국가의 관심은 아동 낙오 방지법에 쏠려 있다. 여기서 주안점은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능함을 훨씬 뛰어넘는 이들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일은 우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영재 학생들의 요구를 인식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

- 재능 있는 아동을 인식한다.
-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 속진에 대해 아이의 부모에게 알린다.
-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급적 가르치지 않는다.
- 영재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학교가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노력한다.

교사는 속진에 관한 연구와 18가지 속진 유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또 학생이 속진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이오와 속진 척도와 같은 전략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

흥미롭게도 단순하지만 완강한 어떤 것, 즉 태도가 경험 있는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수년간 속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수해 온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다.

학급 교사들은 속진한 학생들 가운데 압도적인 수가 자신의 경험에 만족하며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학급 교사들은 <기만 당한 국가> 1권과 2권에 등장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수재 학생을 곧 바로 도울 수 있다.

아이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해서 속진의 진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허비할 수가 없다.



교육/사범 대학: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

속진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는 주제를 논하고 싶어하는 교육자는 별로 없다.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미국의 교사와 행정가들이 교육학 학위라는 한가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교육/사범 대학들은 교육 과정에 있어 학교와 동반자 관계에 있다. 문제는 영재 아동과 관련하여 그들은 말없는 동반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 문제입니다”라고 밴더빌트 사범대학 학장 카밀라 벤보는 설명한다. “사범대학들은 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해 많이 걱정해 왔어요.”

“교수들은 교육의 평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뭔가를 잃었어요, 수월성을 추진한다는 것. 수월성이 없는 사회 정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사범 대학들의 교과 목록을 훑어보면 필수건 선택이건 영재교육에 관한 과정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과정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교사나 행정가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현장에서 영재 학생을 가려내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들은 학위 취득 조건에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영재 문제는 필수 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닌 셈이다. 그래서 많은 교사가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 준비되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해 버린다.

교사와 행정가는 특별한 학습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과정을 자주 수강해야 하는 한편, 그런 특수 교육에 영재는 포함되지 않거나 아니면 뒤늦게 삽입된다.

영재교육과 수월성 문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사범대학들이 속진이라는 주제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속진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 년간 알려져 왔다는 점을 볼 때, 그런 기본적인 교육과정 개입이 교육자 준비과정의 일부로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사범대학의 특징은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이오와 사범대학 학장 산드라 다미코(Sandra Damico)는 말한다. “사범대학 교수진은 미래의 교육자들에게 학생을 대신하여 최선의 학습 관행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직업적 의무가 있어요.”

“속진에 관한 연구가 교사와 행정가를 양성하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범대학의 사명에 대한 일종의 반격입니다”라고 다미코 학장은 주장한다.

교사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교육계 지도자는 현장 교사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처럼 영재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게 되리라고 우려한다.

영재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속진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교사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종합대학과 교육대학들은 교사와 교장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 사회는 그런 기관이 가장 적절한 정보와 관행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정보와 실천 간에 어찌서 그런 단절이 존재하는 것일까?

교육적 관행에 대한 연구의 기반은 사범대학에서 출발하며, 그 연구는 태도와 관행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범대학 교수들은 교육적 관행의 근거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친다. 그런데 속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즉 속진에 관한 연구를 속진을 시행하는 근거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적절한 전문성 개발입니다”라고 벤더빌트 사범대학 학장 카밀라 벤보 박사는 말한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무척, 대단히 힘들어요. 우리는 교사들이 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는 데 있어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속진에 관한 반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미국 전역의 교사들에게 가르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벤보는 믿는다.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교사의 생각을 주말 또는 1주 동안의 전문성 개발 세미나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것이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긴 해도 단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은 일일 연수로 가득 차 있어요”라고 벤보는 말한다. “이것은 하루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 교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가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고 아이오와 사범대학 학장 산드라 다미코 박사는 말한다.

“코네티컷 대학 전미 영재교육 연구 센터나 아이오와 대학 벨린 블랭크 센터와 같은 곳들은 전문성 개발의 본보기일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에 관한 최신 연구 정보 센터로, 그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다 많은 교사가 영재 학생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도전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속진에 대해 지식을 쌓아 갈 때, 그런 영재교육 센터들은 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다미코 학장은 말한다.

다미코 학장과 벤보 학장은 한가지 점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다. 세계 최고의 영재교육 센터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헌신이 없다면 아이들은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재 아동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 명의 학급 교사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아이의 인생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영재 아동의 경우, 교사는 아이에게 적절한 도전 과정을 밝게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교육 진로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진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애쓰는 교육자들에게
거듭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 1권과 2권은 속진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교육자와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우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발전에 핵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들이 우리의 영재
학생들을 가로막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전문(全文) 요약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미국의 학교들은 우수한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인 속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월반을 하는 아이는 사회적 발달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비하여, 50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학생들은 속진을 함으로써 오히려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다.

속진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보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치는 것을 말한다. 속진의 18가지 유형에는 월반, 조기입학, 대학과목 선행이수(AP) 과정 등이 포함된다. 그것은 적절한 교육적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난이도를 학생의 준비상태와 의욕에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속진을 하는 학생들은 더 야심만만한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수년 뒤 인터뷰를 해 보면 속진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속진은 그들에게 탁월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속진한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도전받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또래를 위한 교육과정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많은 우등생들이 겪어야 할 따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설득력 있는 연구는 그 결과를 학부모와 교사, 교장의 손에 전달하고자 하는 대담한 시도 속에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된다. 이 보고서는 학교와 대중매체, 학부모들이 요청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독자들은 초등학교 조기입학과 월반,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 프로그램, 대학 조기입학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속진한 학생들, 사범대학 학장, 교육청장, 교육위원회 의장의 소견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권에 실린 모든 문장은 미국의 주요 교육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추려낸 것이다.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보고서 2권을 참조하길 권한다.

이 모든 연구에서 나온 증거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부모, 교사들은 왜 속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기만 당한 국가는 학교가 미국의 영재 아동들을 저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속진 연구에 대한 지식 부족
- 아이들은 또래와 지내야 한다는 사고방식
- 속진은 아동기를 단축한다는 믿음
- 속진은 아이의 사회성을 저해한다는 두려움
- 평등에 대한 정치적 우려
- 한 아이가 속진하면 다른 학생들이 언짢아할 것이라는 염려

이 보고서는 위의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다. 기만 당한 국가 보고서는 수천 부를 배부하고 대중인식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에게 속진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원,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 보고서의 비용은 온라인과 인쇄물 모두 존 템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에서 부담해주었다. 기만 당한 국가는 미국의 우수 아동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대화를 권장하기 위해 웹사이트 www.nationdeceived.org 가 개설되었다.

우리는 속진이 미국의 아이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www.nationdeceived.org 에서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이 쌍방향 웹사이트에서 독자는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남길 수 있다.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College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Iowa
600 Blank Honors Center
Iowa City, Iowa 52242-0454
800.336.6463
<http://www.education.uiowa.edu/belinblank>

저자 소개 -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



니콜라스 콜랜젤로
(**Nicholas Colangelo**)는 아이오와 대학 마이런 & 재클린 블랭크 영재교육 교수(Myron & Jacqueline Blank Professor of Gifted Education)이자, 코니 벨린 & 재클린 N. 블랭크 영재교육 및 재능개발 국제센터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소장이다. 그는 버몬트 대학에서 상담학 석사학위를,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서 상담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재의 정서개발과 영재 상담에 관한 수 많은 기사를 집필했으며, 두 권의 저작을 출간한 경력이 있다: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Ronald Zaffrann 공저),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Editions 1, 2, 3 판* (Gary Davis 공저). 콜랜젤로는 *Counseling and Development, Gifted Child Quarterl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Roeper Review* 등 주요 저널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학회에 수 편의 연구 논문을 제출하였고 여러 행사에서 기조 연설자로 활약해왔다. 1991년, 그는 전미 영재 협회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로부터 우수 학자상 (Distinguished Scholar Award)을 수상하였으며, 1995년에는 위스콘신 매디슨 사범대학으로부터 동문 공로상 (Alumni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2000년에는 아이오와 교육학회 회원에 선출되었고 아이오와 주 우수 교수 리전트 상 (State of Iowa Regents Award for Faculty Excellence)을 수상했다. 2002년에는 전미 영재 협회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콜랜젤로 박사는 2004-2005년도 아이오와 교육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수잔 애설린
(**Susan G. Assouline**)은 벨린 블랭크 센터의 부소장이다. 그는 교사 자격증을 겸한 일반과학 학사학위, 학교심리학 교육전문가 (Ed.S. in School psychology) 학위, 심리적 양적 기초학 박사 (Ph.D. in Psychological and Quantitative Foundations) 학위 모두를 아이오와 대학에서

취득했다. 박사과정 수료와 동시에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학 영재 청소년 연구소(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에서 2년간 박사후 연구과정을 마친 뒤, 1990년 벨린 블랭크 센터에 합류했다. 애설린은 특히 초등학생의 학문적 재능을 판별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앤 럽카우스키-쇼플릭(Ann Lupkowski-Shoplik)과 공동으로 *Developing Mathematical Talent: A Guide for Challenging and Educating Gifted Students*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또 *Talent Development: Proceedings from the Wallace Research Symposia on Giftedness and Talent Development*를 니콜라스 콜랜젤로와 공동으로 편집하였으며, 교육자와 학부모가 학생의 월반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도구인 아이오와 속진 척도 제2판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속진 결정과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100건이 넘는 속진 사례를 상담해 왔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속진, 수학 재능 개발, 영재/장애 학생에 대한 수많은 연수회를 주도해왔다. 애설린 박사는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벨린 블랭크 센터의 “장애영재 아동 연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라카 그로스

(Miraca U. M. Gross)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소재하는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영재교육학 교수이자 영재교육 연구자료정보 센터 (Gifted Education Research,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re, GERRIC) 소장이다. 그는 영재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권위자로, 특히 미국에서

20년간 속진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구에 조언을 하는 등 영재교육에 지속적인 공헌을 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로스 박사는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속진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선두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퍼듀 대학에서 영재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어 국제 연구상을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다. 1987년, 그는 비(非)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영재교육 연구 우수성에 대한 홀링워스 상 (Hollingworth Award for Excellence in Research in Gifted Education)을 수상했다. 1988년과 1990년에는 멘사 국제 교육연구 재단상(Mensa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Foundation Awards for Excellence)을, 1995년에는 미국의 전미영재협회로부터 명망 높은 신진학자상(Early Scholar Award)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그는 미국교육학회의 단골 기조 발표자이자 초청 연사이기도 하다. 2003년 그로스 박사는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해롤드 윈덤경 메달(Sir Harold Wyndham Medal)을 수상 받았다.

저술 고문 소개

아비야 쿠시너 (Aviya Kushner)는 프리랜서 기자로 현재 아이오와 대학에서 비소설 작문 전공 예술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시(詩)작 전공 석사학위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예술사 및 창작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The Jerusalem Post* 에서 정기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으며, *Harvard Review*, *Partisan Review*, *Prairie Schooner* 에도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의 기사는 *Utne Reader*와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서 논평이 되었고, 공영 라디오 (National Public Radio) 방송에서 토론되어 왔다. *Bankrate.com* 에 실린 재정예 관한 그의 이야기는 널리 재 발행되어 오고 있으며 *MoneyCentral.MSN.com* 에서 가장 요청 횟수가 높은 이야기로 평가되어 왔다. 그는 수년간 *BarnesandNoble.com*의 시 부문 편집기자로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과 해외에서 비즈니스와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저작들을 출간하고 있다.

코니 벨린 & 재클린 블랭크 영재교육 및 재능개발 국제센터 (The Connie Belin & Jacqueline N. 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우리의 비전은 지지, 계획,
연구 면에서 모범적인
지도력을 통해 학생과 교육자,
가족들로 구성된 전 세계의
영재 사회를 고무하고 그에
기여하는 것이다.

벨린 블랭크 센터의 주안점:

- 영재학생을 발굴한다.
- 영재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한다.
- 교육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지원한다.
- 학회와 출판물 통해 정보를 전파한다.
- 영재학생과 그 가족을 파악하고 상담한다.
- 기술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향상한다.
- 지역 및 국내외 정책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재능 개발에 있어 기회와 형평성을 장려한다.
- 학교와 교육전문가들을 상담한다.
- 아동과 가족의 입장을 지지한다.
- 영재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http://www.education.uiowa.edu/belinblank>

영재교육 연구자료정보 센터 (The Gifted Education Research,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re)

우리의 목적:

- 영재아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수행한다.
- 영재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있어 교육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교사와 상담가, 영재학생의 부모를 위한 연수회와 전문가 세미나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 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한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행정업무에 책임을 지며, 영재를 위한 추가 및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 교육자들이 영재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 개발 자료를 폭넓게 출간한다.

<http://gerric.arts.unsw.edu.au/>

우리는 연구를 수행하고
촉진하며 영재 아동과 청소년,
그 가족과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재의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존 템플턴 재단 (The John Templeton Foundation)

존 템플턴 재단의 사명은
광범위한 전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인물들을 한데
모아 철저하고 개방적이며
경험 위주의 방법론을 통하여
신학과 과학의 경계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추구하는 데 있다.

본 재단은 “겸손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주론에서 건강관리에 이르는 학과목에 걸쳐 영적, 신학적 의미를 갖는 주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방법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인간과학 분야에서 본 재단은 평생을 통한 인성교육과 긍정적인 가치관 및 목적의 탐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과 대회, 출판, 연구를 지원한다. 또 템플턴 자유상, 새 교육과정 운영, 자유시장 원칙을 권장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립기관 교육과 계발을 지원한다.

<http://www.templeton.org>

학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자료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자료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오늘날 수백 개의 자동 e메일 발송 시스템과 웹사이트가 영재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 F의 첫 부분은 “재능 찾기”를 후원하는 센터들을 포함하여, 영재교육 단체를 소개한다. 많은 단체가 학생 대상 프로그램 또는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래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인 일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재교육 및 재능 찾기 센터

Academic Talent Search

6-9학년생을 위한 재능 찾기 및 여름/주말 프로그램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CA
<http://edweb.csus.edu/projects/ATS>

Belin-Blank International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2-9학년생을 위한 재능 찾기(BESTS); 3-12학년생을 대상으로 통학 및 상주 프로그램 운영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http://www.education.uiowa.edu/belinblank>

Carnegie Mellon Institute for Talented Elementary Students (C-MITES)

3-6학년생을 위한 재능 찾기; 펜실베이니아 전역의 K-7학년생을 위한 통학 프로그램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http://www.cmu.edu/cmities>

Center for Gifted Education

영재교육 대학원 과정;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Williamsburg, VA
<http://www.cfge.wm.edu>

Centre for Gifted Education

University of Calgary, Calgary, Alberta, Canada
<http://www.ucalgary.ca/~gifteduc/>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Arkansas

리틀록에 소재한 아칸소 대학 영재교육 센터는 영재학생과 그 가족, 교사, 행정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uarl.edu/giftedctr/>

The Center for Gifted Studies

아동과 부모, 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영재교육 센터
Western Kentucky University, Bowling Green, KY
<http://www.wku.edu/gifted>

Center for Talent Development

4-9학년생을 위한 재능 찾기; K-12학년생을 위한 여름/주말 프로그램, 통학 또는 상주 가능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http://www.ctd.nwu.edu>

Center for Talented Youth (CTY)

초·중등학생을 위한 통학 및 상주 프로그램;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통신 강좌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D
<http://www.cty.jhu.edu>

Davidson Institute for Talent Development

아주 지능이 높은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함.
Reno, NV
<http://www.ditd.org>

Frances A. Karnes Center for Gifted Studies

7-10학년 대상.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Hattiesburg, MS

<http://www-dept.usm.edu/~gifted>**Gifted Development Center**

Denver, CO

<http://www.gifteddevelopment.com>**Gifted Education Research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NSW, Australia

<http://gerric.arts.unsw.edu.au/>**Hampshire College Summer Studies in Mathematics**

수학적 재능과 의욕을 갖춘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Hampshire College, Amherst, MA

<http://www.hcssim.org>**The Hollingworth Center for Highly Gifted Children**

홀링워스 센터는 뛰어난 영재 아동에 역점을 둔 미국 전역에 대한 지원 및 자료 네트워크이다.

<http://www.hollingworth.org>**Interlochen Center for the Arts**

3-12학년 대상.

Interlochen, MI

<http://www.interlochen.org>**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NRC)**

Jacob K. Javits Act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코네티컷 대학에 자리한 NRC는 "핵심 연구-1 대학" (Core Research-1 Universities, 코네티컷, 버지니아, 예일) 세 곳의 연구학자, 현직 종사자, 정책 입안자로 구성된 전미 협력단체이다. 회보, 논문, 온라인 자료, 다른 단체와 자료에 대한 대규모 링크 제공.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http://www.gifted.uconn.edu>**Office of Precollegiate Programs for Talented and Gifted (OPPTAG)**

7-9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목의 상주 여름과정 운영;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기 중 수학 교실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http://www.public.iastate.edu/~opptag_info**Program in Mathematics for Young Scientists (PROMYS)**

야심 찬 고등학생들이 수학의 창의적 세계를 탐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도전적인 프로그램.

Boston University, Boston, MA

<http://math.bu.edu/people/promys>**Purdue University Gifted Education Resource Institute**

7-12학년 대상.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

<http://www.geri.soe.purdue.edu>**Research Science Institute**

진도를 빨리 나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위한 과학 지도/안내 프로그램.

Vienna, VA

<http://www.cee.org/rsi/>**Rocky Mountain Talent Search and Summer Institute**

만 11-16세를 위한 상주 및 통학 프로그램

Denver, CO

<http://www.du.edu/education/ces/si.html>**Ross Mathematics Program**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은 만 14-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학 과정 운영.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http://www.math.ohio-state.edu/ross>**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Gifted Students Institute and Precollege Programs**

7-11학년 대상.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TX

<http://www.smu.edu>

Summer Program for Verbally and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

7-10학년 대상.

The Center for Gifted Studies

Western Kentucky University, Bowling Green, KY

<http://www.wku.edu/gifted>

Talent Identification Program (TIP)

7-12학년생을 위한 상주 여름 프로그램; 4-6학년생에게 교육 정보 제공.

Duke University, Durham, NC

<http://www.tip.duke.edu>

University of Minnesota Talented Youth Mathematics Program (UMTYMP)

5-12학년생을 위한 속진 수학 통학 프로그램.

Institute of Technology Center for Educational Programs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http://www.math.umn.edu/itcep/umtymp>

Wisconsin Center for Academically Talented Youth (WCATY)

4-12학년 대상

Madison, WI

<http://www.wcaty.org>

대학 조기입학 프로그램

Accelerated College Entrance Center

9-12학년 대상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CA

<http://www.educ.csus.edu/projects/ace>

The Advanced Academy of Georgia

10학년 때 입학하여 11, 12학년과 대학 1, 2학년을 동시에 수료함.

State University of West Georgia, Carrollton, GA

<http://www.westga.edu/~academy>

The Clarkson School

1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대학 조기입학 기관.

The Clarkson School, Potsdam, NY

<http://www.clarkson.edu/tcs>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Sciences, and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Iowa

11학년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마친 고등학생 대상.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http://www.education.uiowa.edu/belinblank>

Program for the Exceptionally Gifted

여학생은 8학년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들은 대개 4년 이내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Mary Baldwin College, Staunton, VA

<http://www.mbc.edu/peg>

Simon's Rock

10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대학 조기입학 기관.

Director of Admission

Simon's Rock of Bard College, Great Barrington, MA

<http://www.simons-rock.edu>

University of Washington

Halbert and Nancy Robinson Center for Young Scholar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http://www.depts.washington.edu/cscy>

원격 교육

Advanced Placement Program

많은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과정으로 매년 5월에 미국 전역에서 시험이 실시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 34개의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AP)이 없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APEX Learning Corporation과 같은 단체를 통해 온라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많은 주가 온라인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위한 학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Princeton, NJ

<http://apcentral.collegeboard.com>

Educational Program for Gifted Youth (EPGY)

컴퓨터 기반의 원격 교육으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학문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 수리 과학, 비소설 작문 과정을 제공한다.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http://www-epgy.stanford.edu>

Extension University

가정학습 과정으로, 온라인 또는 해당 연계 기관, 인터넷 연수, 및 통신 교육망을 통해 수료할 수 있다.

<http://www.onlinelearning.net>

Iowa Online Advanced Placement Academy (IOAPA)

Belin-Blank Center,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아이오와 온라인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아카데미 (IOAPA)는 아이오와 주 전역의 모든 고등학교, 특히 시골 또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AP)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웹기반 기술이나 아이오와 광섬유망을 통해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원래 목적은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었다. 2001년 IOAPA가 개설되었을 때 아이오와 주는 학생 1,000명당 대학과목 선행이수과정 시험 응시 횟수에서 미국 전역 45위였다. 응시 비율은 해마다 25%씩 증가하여 지금은 미국 전역 37위에 달한다. 학생들이 통신학습 과정을 수강할 때 일반적인 탈락 비율은 50% 또는 그 이상에 이른다. 그런데 IOAPA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탈락 비율이 고작 7%에 지나지 않는다. 독특한 멘토링 요소 때문에 IOAPA 학생들의 수료 비율은 놀랍게도 93%에 이르고 있다.

<http://www.iowaacademy.org/>

Johns Hopkins University

영재청소년 센터(Center for Talented Youth)는 원격교육 센터(Center for Distance Education)를 통해 비소설 작문 과정과 수학 우편지도 과정을 제공한다.

<http://www.jhu.edu/gifted/cde>

Northwestern University

재능개발 센터(Center for Talent Development)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6-12학년생을 위한 글자 잇기 학습(Letter Links Learning) 및 원격교육 과정을 포함, 연구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http://www.ctd.northwestern.edu>

The University of Nebraska Independent Study High School

Clifford Hardin Nebraska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Lincoln, NE

<http://dcs.unl.edu/ishs>

각종 대회

American History Essay Contest

5-8,학년 대상; The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후원.

<http://www.dar.org>

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

(옛 명칭: AHSME)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자는 미국 초청수학경시대회 (American Invitational Mathematics Exam), USA 수학올림피아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로 나아가게 된다.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Lincoln, NE

<http://www.unl.edu/amc>

American Model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ttp://www.amun.org>

American Regions Mathematics League

(ARML)

ARML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는 전미 수학 경시대회로, 세 군데서 동시에 개최된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아이오와 대학, 산 호세 주립대.

<http://www.arml.com>

Annual Math League Contests

Math League Press, Tenafly, NJ

<http://www.mathleague.com>

Destination Imagination

<http://www.destinationimagination.org>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병행, 경쟁 및 비경쟁 활동 지도.

Lexington, KY

<http://www.fpsp.org>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대학예비 과학교육 프로그램.

<http://www.hhmi.org/grants/reports/scienceopp/main>

Intel Science Talent Search

옛 명칭은 웨스팅하우스 과학재능찾기 (Westinghouse Science Talent Search)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매년 11월 29일까지 단독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수상자에게 대학 장학금이 지급된다.

Washington, DC

<http://www.sciserv.org/sts>

Junior Engineering Technical Society (JETS)

공학, 과학, 수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시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적인 교육기관.

Alexandria, VA

<http://www.jets.org>

Knowledge Master Open

<http://www.greatauk.com/KMO.html>

Mandelbrot Competition

고등학생 대상.

<http://www.mandelbrot.org>

MATHCOUNTS

7-8학년생을 위한 일련의 경시대회로, 전미공학자협회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전미수학교사협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ASA, CNA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단계 연중 프로그램.

Alexandria, VA

<http://www.mathcounts.org>

MOEMS

초·중등학생을 위한 수학 올림피아드; 8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기 중 교내 경시대회로, 4-6학년이 참가하는 Division E와 6-8학년이 참가하는 Division M으로 나뉜다.

Bellmore, NY

<http://www.moems.org>

National Academic Quiz Tournament

<http://www.naqt.com>

National Geographic Bee

4-8학년 대상

<http://www.nationalgeographic.com/geographybee/index.html>

National Merit Scholarships

11학년 때 응시한 PSAT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수준의 경시대회에 출전한다.

<http://www.nationalmerit.org>

National Science Bowl

<http://www.scied.science.doe.gov/nsb>

Odyssey of the Mind

<http://www.odysseyofthemind.com>

Science Olympiad

과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며 과학교육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학생과 교사를 표창하기 위하여 경시대회와 교실 활동, 연수회를 운영한다. 생물학, 지학, 화학, 물리, 컴퓨터, 기술 분야에 역점을 둔다.

Rochester, MI

<http://www.soinc.org>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

<http://www.spellingbee.com>

U.S. Chemistry Team (고등학생 대상)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http://www.acs.org/education/student/olympiad.html>

U.S. Physics Team (고등학생 대상)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s Teachers, American Center for Physics

College Park, MD

<http://www.aapt.org/Contests/olympiad.cfm>

USA Mathematical Talent Search (USAMTS)

<http://www.nsa.gov/usamts>

United States Academic Decathlon

<http://www.usad.org>

출판물

Academic Competitions for Gifted Students

지은이: Tallent-Runnels, M.K., & Candler-Lotven, A.C. (1995).
펴낸곳: Corwin Press, Thousand Oaks, CA

Competitions: Maximizing Your Abilities

지은이: Karnes, F.A., & Riley, T.L. (1996).
펴낸곳: Prufrock Press, Waco, TX.
이 책은 다른 많은 대회들을 수록하고 있다.

Developing Mathematical Talent: A Guide for Challenging and Educating Gifted Students

지은이: Assouline, S. & Lupkowski-Shoplik, A. (2003).
펴낸곳: Prufrock Press, Waco, TX.
이 책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안내서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이례적인 요구에 부응함에 있어 교육자와 부모의 독특한 역할을 통합하고자 한다.

Directory of Science Training for High Ability Pre-college Students

Science Services, Washington, DC
<http://www.sciserv.org/stp>

Educational Opportunity Guide

듀크 대학의 TIP(Talent Identification Program)에서 제작한 이 가이드는 매년 발간되며,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다수의 여름 및 학기 중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TIP의 재능 찾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무료 책자를 받게 된다.

Duke University, Durham, NC
<http://www.tip.duke.edu>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2nd ed.)

지은이: Gross, M.U.M. (2004).
펴낸곳: Routledge Falmer, London
<http://www.routledgefalmer.com>

Genius Denied

지은이: Davidson, J. & Davidson B. (2004).
펴낸곳: Simon and Schuster, New York.
<http://www.geniusdenied.com>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

역은이: Colangelo, N. & Davis, G. (2003).
펴낸곳: Allyn & Bacon, Needham Heights, MA

Iowa Acceleration Scale

개발자: Assouline, S. G., Colangelo, N., Lupkowski Shoplik, A. E., & Lipscomb, J., and Forstadt, L. (2003).
펴낸곳: Great Potential Press, Scottsdale, AZ
이 지침 도구는 K-8학년생의 월반을 고려하고자 하는 교육자와 학부모에게 체계적이며 철저한 의사결정 수단을 제공한다.

<http://www.giftedbooks.com>

Math Coach: A Parent's Guide to Helping Children Succeed in Math

지은이: Wickelgren, W.A., & Wickelgren, I.
펴낸곳: Berkley Books, New York.

Peterson's Summer Opportunities for Kids and Teenagers

이 책자는 여름캠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해마다 갱신된다. 지역 서점을 통해 주문하거나 1-800-338-3282로 연락하기 바란다.

정기 간행물

Advanced Development Jour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Advanced Development
Denver, CO.
<http://www.gifteddevelopment.com/Merchant2/merchant.mvc>

Gifted Child Quarterly

전미영재학회(NAGC)의 공식 출판물로, 영재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기사들을 실고 있다.
<http://www.nagc.org/Publications/GiftedChild/>

Gifted Child Today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전문용어를 피하면서, 재능 있고 창의적이며 재주가 뛰어난 아동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Prufrock Press.
<http://www.prufrock.com>

Imagine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위한 잡지로 1년에 5차례 발간된다.

Center for Talented Youth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www.jhu.edu/~gifted/imagin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JEG)

특별아동협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의 한 지부인 영재학회(The Association for the Gifted, TAG)의 공식 출판물로, 해당 분야의 저작에 경험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Prufrock Press, Waco, TX

800-998-2208

http://www.prufrock.com/client/client_pages/prufrock_jm_jeg.cfm

Parenting for High Potential

NAGC가 발행하는, 학부모를 위한 훌륭한 잡지
Washington, DC.

202-785-4268

<http://www.nagc.org/Publications/Parenting/index.html>

Roeper Review

이 출판물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기사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론적, 실천적 문제 모두를 함께 다룬다.

Bloomfield Hills, MI

<http://www.roeperreview.org>

Understanding Our Gifted

Open Space Communications, Inc., Boulder, CO.
303-444-7020 또는 800-494-6178

<http://www.openspacecomm.com>

Vision

코니 벨린 & 재클린 블랭크 영재교육 및 재능개발 국제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319-335-6148 또는 800-336-6463

<http://www.uiowa.edu/~belinctr/vision>

관련 단체

대부분의 주는 영재 학생들을 주 단위나 지역 단위로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후원 단체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영재교육 예비연수 및 현장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지역사회의 인식과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주별로 자세한 정보는 NAGC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전미영재협회는 50년이 넘게 존재해온 비영리 단체로,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두 권의 정기 간행물을 출간한다. 하나는 학부모를 위한 잡지(*Parenting for High Potential*)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가를 위한 저널(*Gifted Child Quarterly*)이다. 협회의 목적은 영재 아동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학부모와 교육자, 지역사회 지도자,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다.

Washington, DC

<http://www.nagc.org>

American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미국영재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재 지원 단체로 194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

Duke University, Durham, NC.

<http://www.aagc.or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Esther Katz Rosen Center for Gifted Education Policy

이 센터의 사명은 대중의 인식, 옹호, 임상 적용, 최첨단 연구 아이디어를 촉진하여 특별한 재능과 재주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http://www.apa.org/ed/cgep.html>

The Association for the Gifted (TAG)

특별아동협회(CEC)의 특별 이익 집단

Arlington, VA

<http://www.cec.sped.org>

Hollingworth Center for Highly Gifted Children

Dover, NH

303-554-7895

<http://www.hollingworth.org>

Supporting Emotional Needs of the Gifted (SENG)

Scottsdale, AZ
206-498-6744
<http://www.sengifted.org>

TAG Family Network

1990년 오리건 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미 학부모 협회. 정보는 아래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rkaltwas@teleport.com.
There is also a TAG Hotline: 503-378-7851.

Belin-Blank Center listserv

구독을 원하면 listserv@list.uiowa.edu로 이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제목 난은 공백으로 남겨두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를 바란다: [subscribe gifted-teachers](#).

웹사이트

Afterschool.gov

<http://www.afterschool.gov>

American Memory: Historical Collections

<http://memory.loc.gov>

Cyberkids

<http://www.cyberkids.com>

Discovery Channel School

<http://www.school.discovery.com>

Early Entrance College Programs in the USA

대학 조기입학생이 개발한 종합 사이트; 학부모와 학생 대상.
<http://earlyentrance.org>

Eisenhower National Commission

수학과 과학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자료 및 유용한 정보 사이트:
<http://www.enc.org>

Exploring the Solar System

<http://www.nytimes.com/library/national/science/solar-index.html>

Federal Resources for Educational Excellence

<http://www.ed.gov/free>

Free Firewood

학생들을 위한 방대한 교육과정 내용 모음.
<http://www.ignitethefire.com/freefirewood.html>

The Hoagies Gifted Education Page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입문 자료.
<http://www.hoagiesgifted.org>

KidSource

<http://www.kidsource.com/kidsource/pages/ed.gifted.html>

Learning Network, On This Day

<http://www.nytimes.com/learning/general/onthisday>

The Learning Page

<http://cweb2.loc.gov/ammem/ndlpedu/index.html>

Mathematics Education at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http://www.nku.edu/~mathed/gifted.html>

My History is America's History

http://www.pueblo.gsa.gov/cic_text/misc/my-history-p/my-hist.htm

National Gallery of Art

<http://www.nga.gov/education/education.htm>

National Park Service Museum Exhibits

<http://www.cr.nps.gov/museum/exhibits/index.html>

ShowMe Center

<http://www.showmecenter.missouri.edu>

독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정보 찾기

우리 국가의 미래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의 전문적, 기술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가망이 있는 학생들은 언어적,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바로 그런 학생들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다.

변화를 요구하기

모든 시민이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자녀 또는 반 학생이 속진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태도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미국인은 영재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기회를 보고 싶어한다.

사람의 진로를 막고 꿈을 추구함을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특성에 어긋난다. 학교가 모든 아동의 학습요구를 만족시킬 때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투표하기

교육위원회 후보가 속진의 오랜 긍정적 성과를 학문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략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후보를 눈여겨보도록 하라. 어떤 주제에 대한 사실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후보는 훌륭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영재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염려하는 후보는 각 교육위원회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진정한 평등은 적절한 기회를 의미한다.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이 모든 학생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도록 하라.

입법자들에게 편지 보내기

주정부와 연방정부 입법자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라. 교육위원회에도 편지를 보내도록 하라. 교장에게 연락을 하라. 그들이 알도록 하라.



저는 최근에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를 읽고 매우 염려가 됩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 우리의 영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저는 독자가 그 학생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전문은 <http://nationdeceived.org> 참조



변명 또 변명

속진에 관한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변명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변명 1:

우리는 아이가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원만하다.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지 않은가? 만약 속진을 한다면 아이가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변명 2:

그것은 아이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긴다. 고작 8살이 아닌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변명 3:

우리 학교에 똑똑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정말로 월반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변명 4:

속진이 학문적 또는 사회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없다.

학교가 던져야 할 질문들

“속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미국의 모든 대화는 아래 3가지의 기본적이며 타당한 질문 또한 포함해야 한다. 한 학생의 속진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논의하도록 하라.

기본 질문 1:

우리는 아이가 진짜 정말로 빠른 속도의 앞서가는 교육과정에 준비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 아이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았는가?

기본 질문 2:

우리의 평가 결과를 볼 때, 어떤 형태의 속진이 그 아이에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는가?

기본 질문 3:

일부 속진의 경우는 효과가 없었다. 그 아이의 속진을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만 당한 국가 1권과 2권에 정보에 입각한
응답이 실려 있다**

기만 당한 국가:

학교가 어떻게 미국의
영재들을 퇴보시키고 있는가